

2025 화성특례시

가족정책 포럼

발표자료



“함께 만드는 가족정책, 시민의 목소리로” 화성특례시 가족정책 현황과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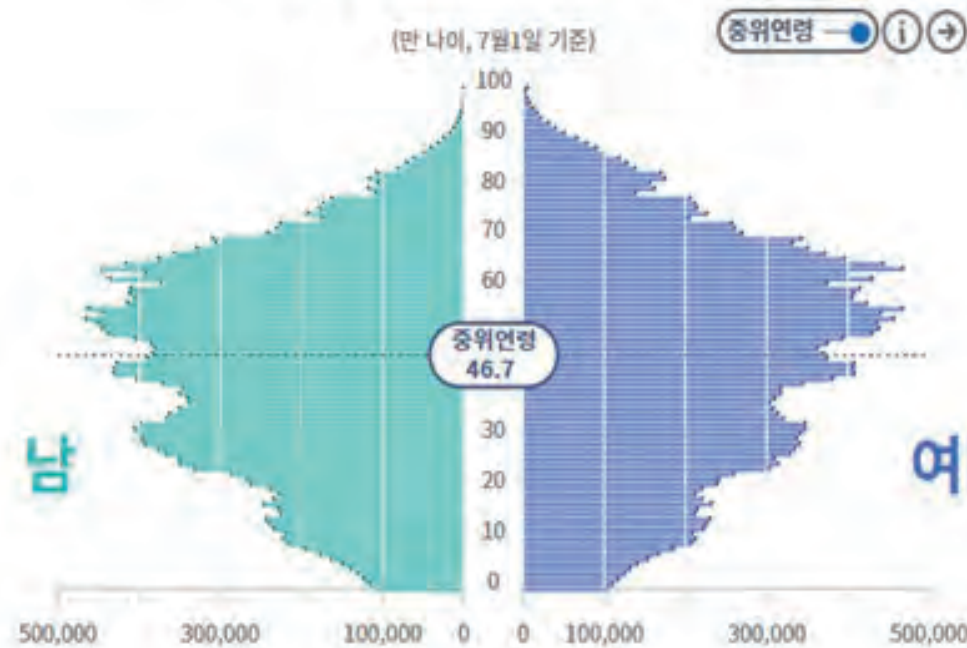
성정현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목차

- I. 인구, 가족 변화와 대응
- II. 화성특례시 인구,가족 현황과 특징
- III. 사회적 대응: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IV. 화성특례시 가족정책
- V. "함께 만드는 가족정책, 시민의 목소리 "

I. 인구, 가족 변화와 대응

2025
51,684,56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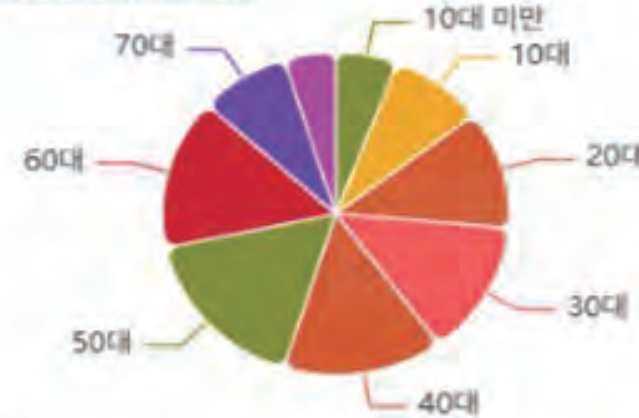


연령계층별 구성비		총부양비	
유소년인구 0-14세	10.2%	유소년 14.6	노년 29.3 = 전체 43.9
생산연령인구 15-64세	69.5%		
고령인구 65세 이상	20.3%	노령화지수 유소년인구 100명당	199.9

출처: KOSIS 인구조로 보는 대한민국

연령대별 인구구조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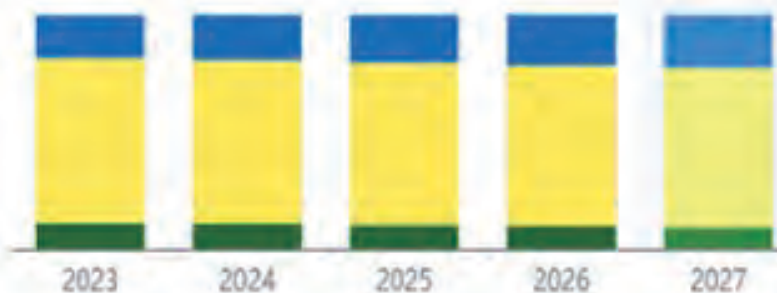
단위: %
통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인구조조 #연령별 #고령화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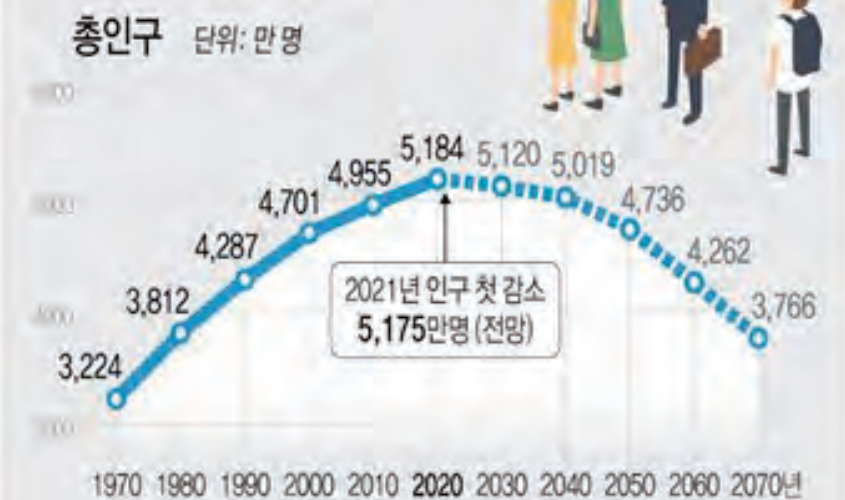
단위: %
통계 출처: 통계청 2027

유소년 인구 (14세 이하)	9.2
생산연령인구 (15-64세)	68.3
고령인구 (65세 이상)	22.5



인구, 절벽

총인구·중위연령 추이



자료/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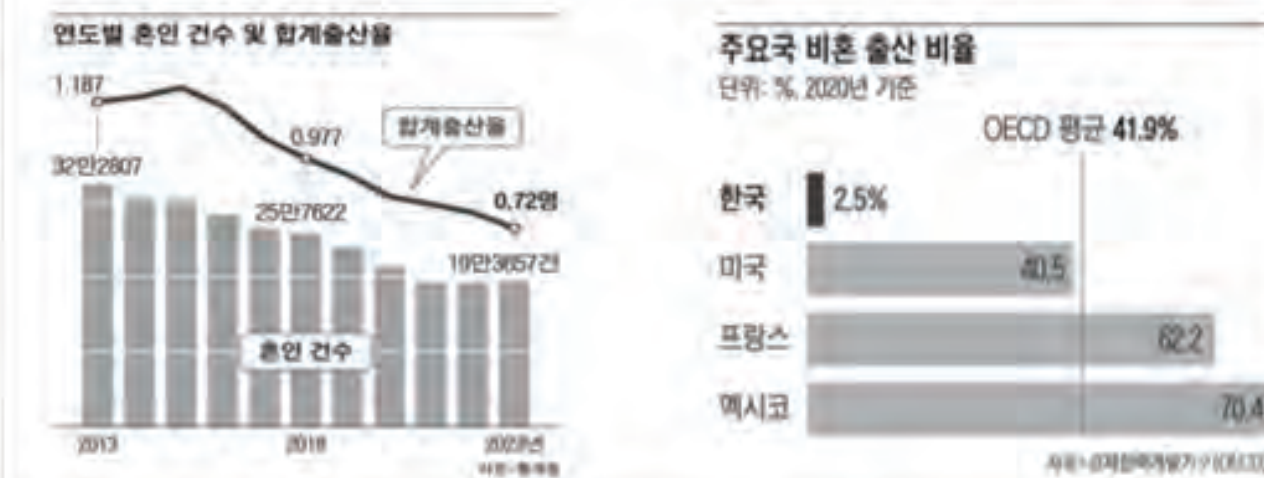
김영은 기자 / 20211209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2025.3.16 연합뉴스 "인구 반토막·성장을 0%"...인구절벽에 무울한 경고

인구, 가족변화 실태

-가족의 형성인 혼인은 출생(산)의 핵심 선행지표(상관관계 $r=0.80$ 이상)



한국가족센터협회, 미래복지경영 포럼, 2025, 인구절벽을 넘어서는 가족정책의 힘.

계속 떨어지는 '혼인 대비 출산 비율'

단위: 명, 2022년부터는 예상치



결혼해도 애 안 낳아... '혼인 대비 출산비'도 역대 최저 수준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5423>

- 20대 후반과 30대 1인가구와 무자녀부부가구 비율이 큼, 기혼여성 중 한모 가구 1인 가구 증가, 추가 계획자녀 수 저하.
- 미혼 경우, 자녀 필요성에 대한 동의율이 낮음, 청년층 가족가치관 변화 vs 정책변화 지체(통계청, 2021)
- 경제여건, 성별 격차(경제활동참가율과 임금격차), 가족친화정책, 혼인률, 육아휴직기간 > 현금급여 (김현숙, 정진화, 2019) => 노동에서의 성별격차 해소
- 보육시설의 양적 규모
- 관계, 생활, 제도로서의 가족 인식 필요



출처: 진미정, 2022, 새정부 출범에 따른 가족정책의 방향성과 과제

인구동향			
항목	2015	2020	2024 p)
조출생률 (천명당)	8.6	5.3	4.7
조사망률 (천명당)	5.4	5.9	7.0
자연증가율 (천명당)	3.2	-0.6	-2.4
합계출산율(명)	1.239	0.837	0.750
출생성비(명)	105.3	104.8	105.0
조혼인율 (천명당)	5.9	4.2	4.4
조이혼율 (천명당)	2.1	2.1	1.8
기대수명 (출생시 기대여명)	82.1	83.5	-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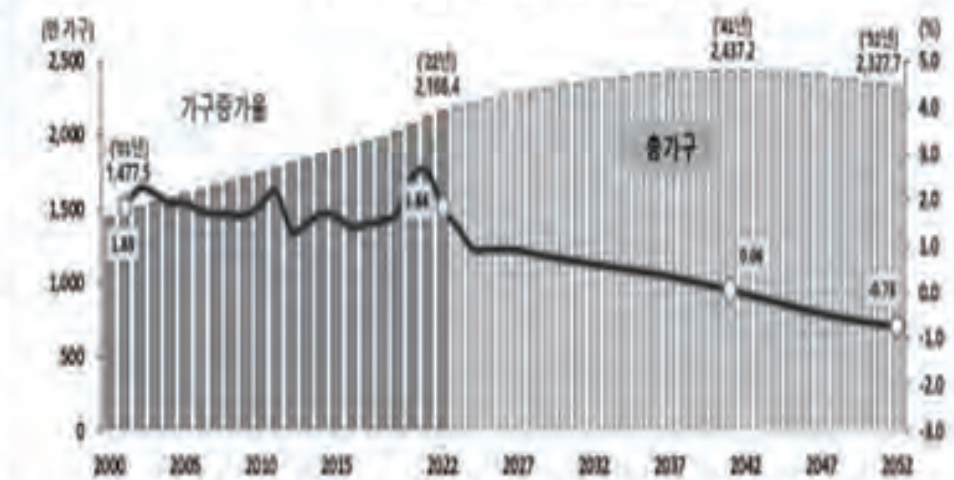
가구유형 실태					
행정구역별 (시군구)	세대구성별	2020		2024	
		일반가구 (가 구)	평균 가구원수 (명)	일반가구 (가 구)	평균 가구원수 (명)
전국	계	20,926,710	2.3	22,294,419	2.2
	1세대 가구	3,893,435	2.0	4,282,138	2.0
	2세대 가구	9,201,530	3.3	8,781,648	3.2
	3세대 가구	759,548	4.6	601,975	4.5
	4세대 이상 가구	5,384	6.0	3,297	5.8
	1인 가구	6,643,354	1.0	8,044,948	1.0
	비친족 가구	423,459	2.2	580,413	2.1
경기도	계	5,098,431	2.5	5,592,072	2.3
	1세대 가구	880,658	2.0	991,283	2.0
	2세대 가구	2,493,291	3.3	2,490,899	3.3
	3세대 가구	207,109	4.6	174,042	4.5
	4세대 이상 가구	1,505	6.1	961	5.8
	1인 가구	1,406,010	1.0	1,775,259	1.0
	비친족 가구	109,858	2.2	159,628	2.1
화성시	계	321,871	2.5	388,620	2.4
	1세대 가구	50,980	2.0	63,343	2.0
	2세대 가구	160,992	3.4	178,349	3.4
	3세대 가구	10,678	4.7	9,618	4.6
	4세대 이상 가구	76	6.0	44	5.6
	1인 가구	91,164	1.0	124,878	1.0
	비친족 가구	7,981	2.2	12,388	2.1

가구 : 생애단계별 실태

구분		2020			2023		
		가구주 계	남자	여자	가구주 계	남자	여자
전국	전체	20,924,886	14,080,932	6,843,954	22,070,820	14,448,528	7,622,292
	청년 가구	4,895,252	3,087,936	1,807,316	4,935,396	2,984,086	1,951,310
	중장년 가구	11,297,309	8,087,266	3,210,043	11,480,213	8,039,709	3,440,504
	노년 가구	4,732,325	2,905,730	1,826,595	5,655,211	3,424,733	2,230,478
화성 시	전체	321,830	235,691	86,139	375,045	267,217	107,828
	청년 가구	107,146	76,346	30,800	115,565	79,330	36,235
	중장년 가구	176,754	134,604	42,150	208,579	155,572	53,007
	노년 가구	37,930	24,741	13,189	50,901	32,315	18,586

-감소하는 총 인구와 달리 가구 수는 2042년까지 증가

< 총가구 및 가구증가율, 2000~2052 >



자료: 통계청(2024. 9. 12.),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

화성특례시 특징

- 청년 중 여성가구주 가구 증가폭이 큼
- 노년가구주 비율 증가 폭 큼

출처: 통계청, 생애단계별 행정통계(2025.8.5)

인구, 가족 동향과 인구오너스

- 출생률감소, 사망률 증가 경향
- 혼인률 감소->증가, 이혼율 감소
- 초혼연령 상승, 기대수명 증가
- 혼인, 가족에 대한 관념 변화
- 청년세대 삶의 우선순위가 결혼과 자녀
 <노동중심 이동>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경력단절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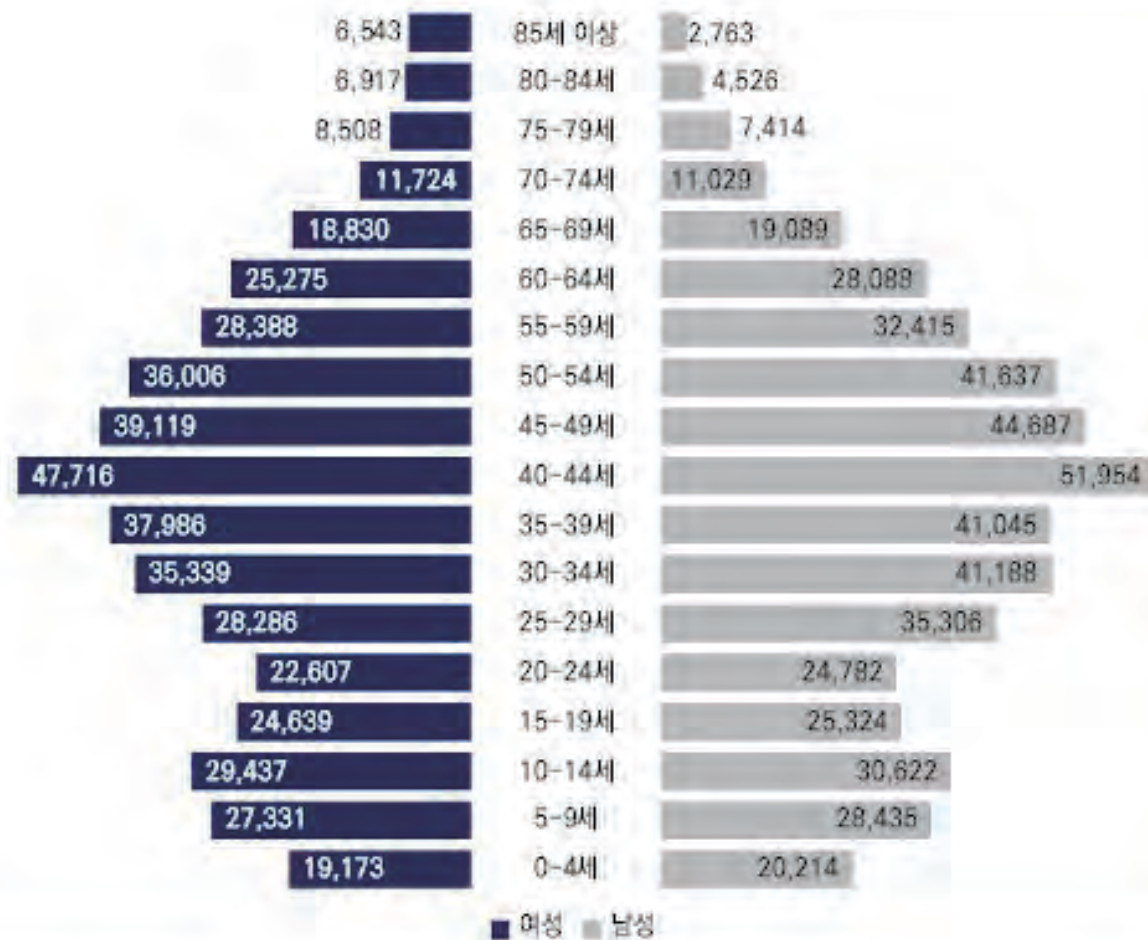
인구오너스

사회경제적 부담
성장둔화
사회전반 영역 불균형
세대간 갈등, 불평등 심화 등

양성 평등적 가족정책과 일과 가정의 양립, 다양한 가족 형태의 차별 없는 수용, 노동력 확보를 위한 우수 이민자 유입, 고령층 노동력 활용, 청년층의 안정적 경제 자립지원 등의 선순환 구조
= 가족정책

II. 화성특례시 인구·가족 현황과 특징

화성 특례시 인구피라미드



화성 특례시 주민등록인구 추이(2018-2023)



인구증가율(202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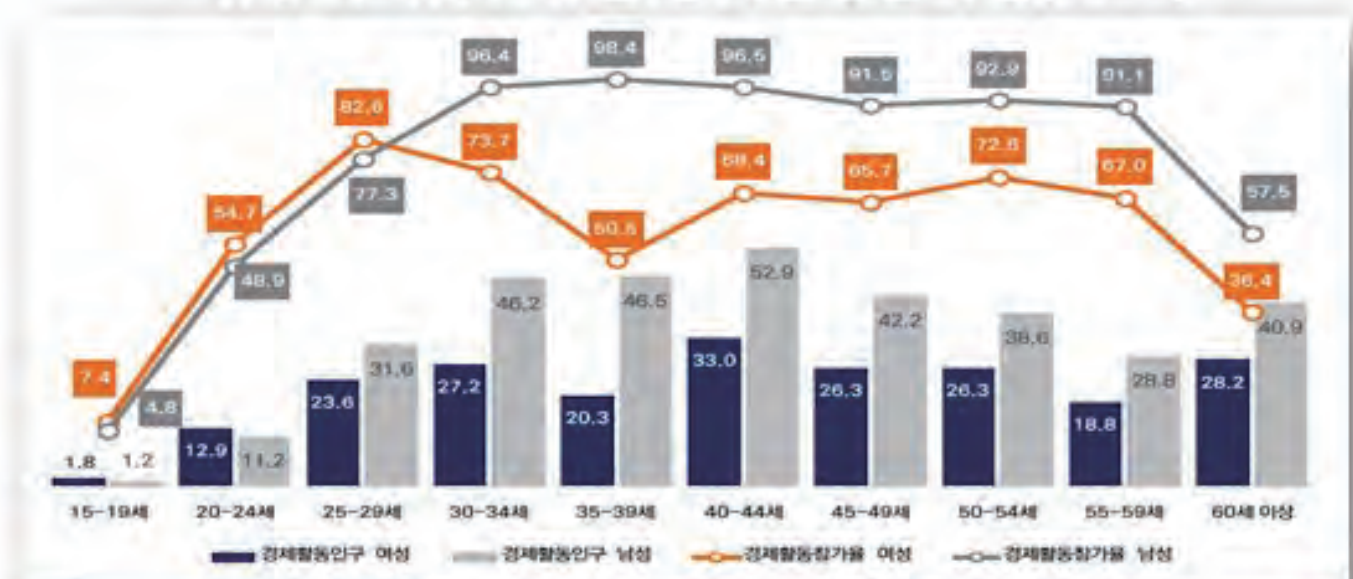
출처: 성인지통계

인구, 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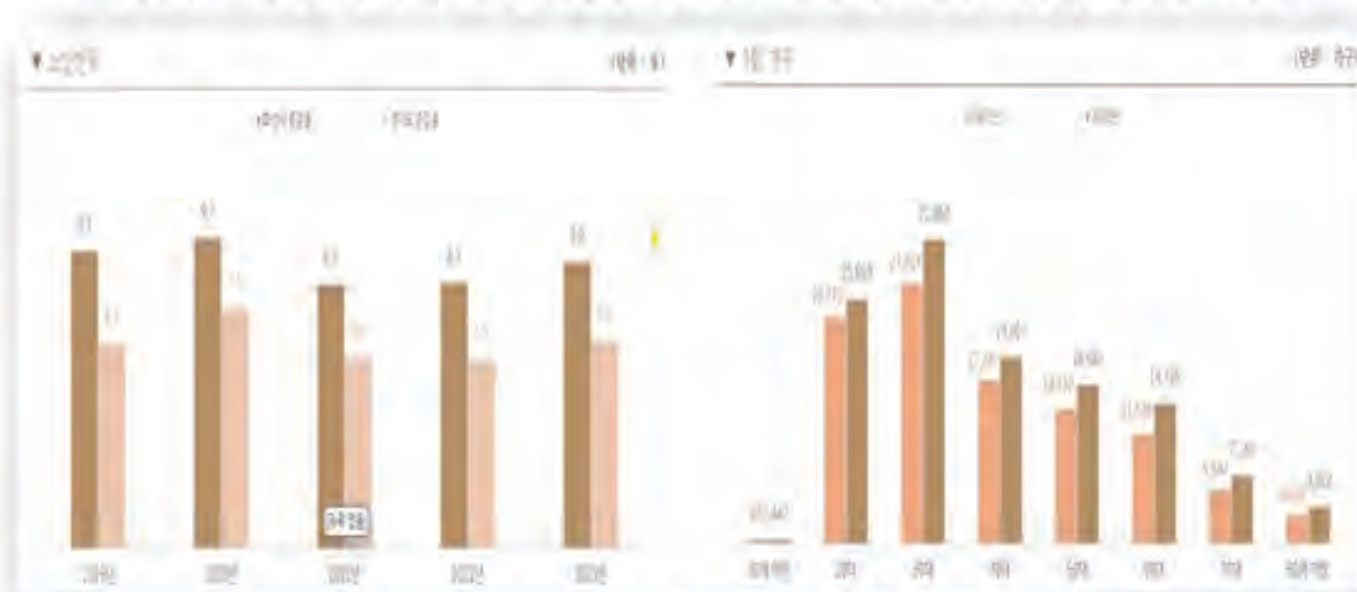
세대구성별 가구분포(2022)



화성 특례시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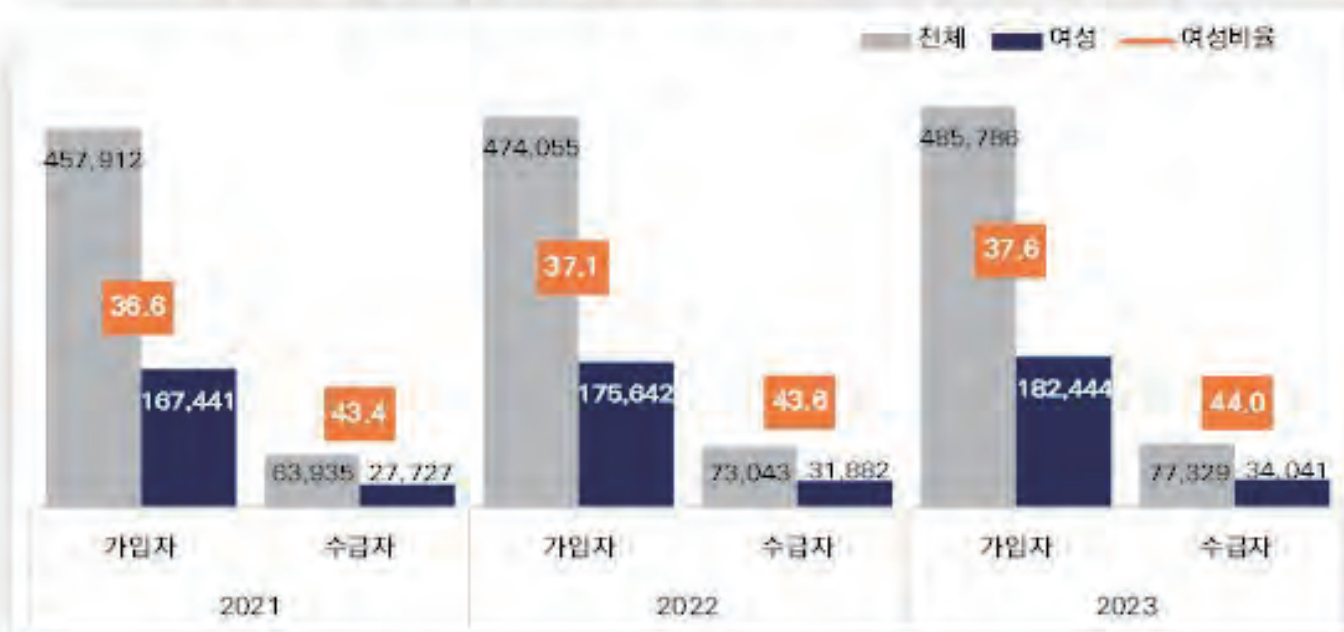
노인인구(2019-2023)와 1인 가구(2021,2023)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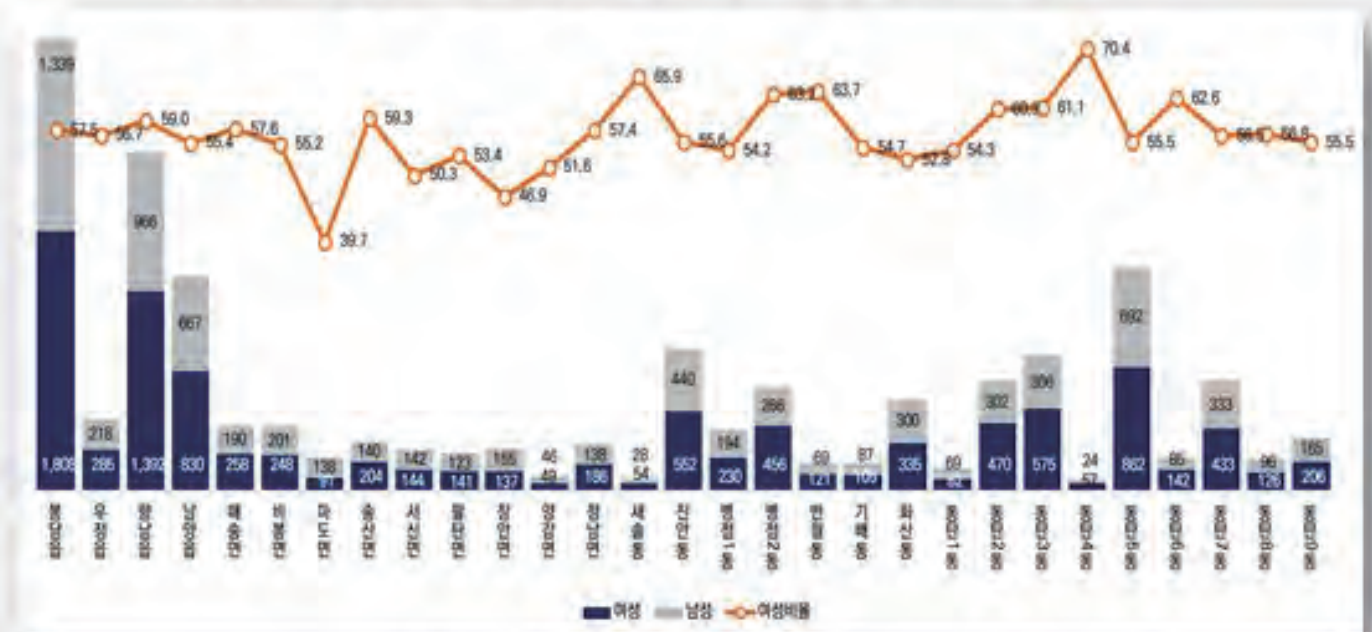
외국인 주민현황(202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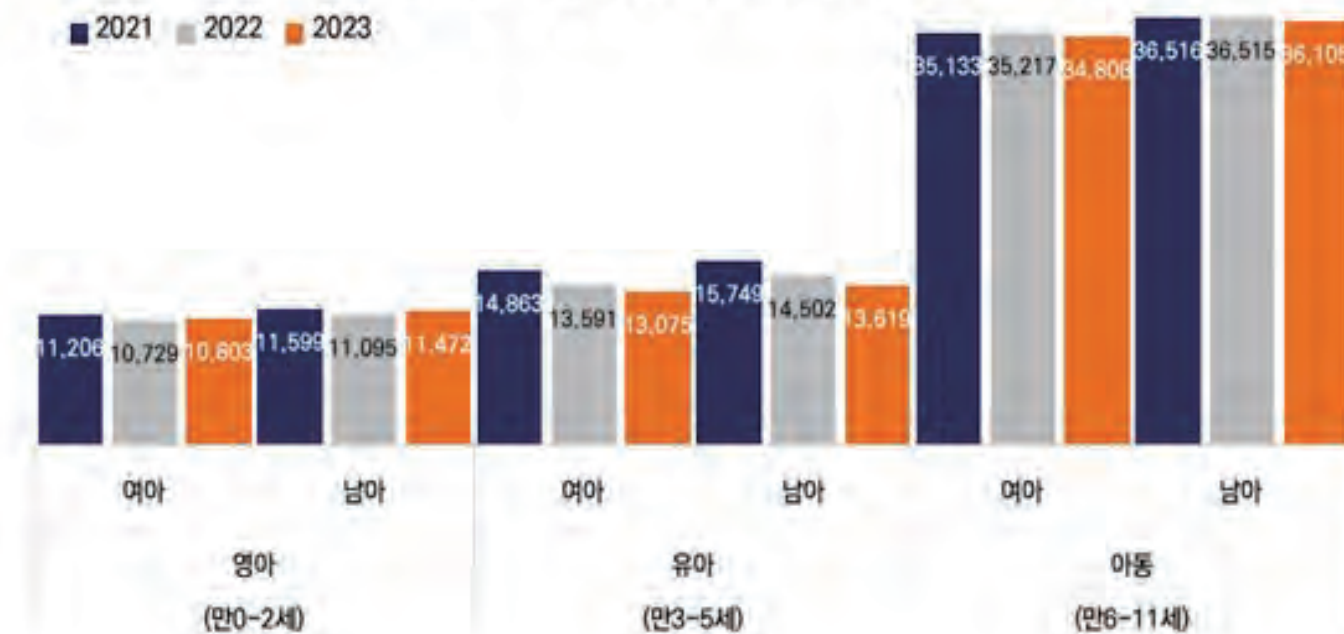
국민연금가입자 및 수급자(2021-2023)



행정동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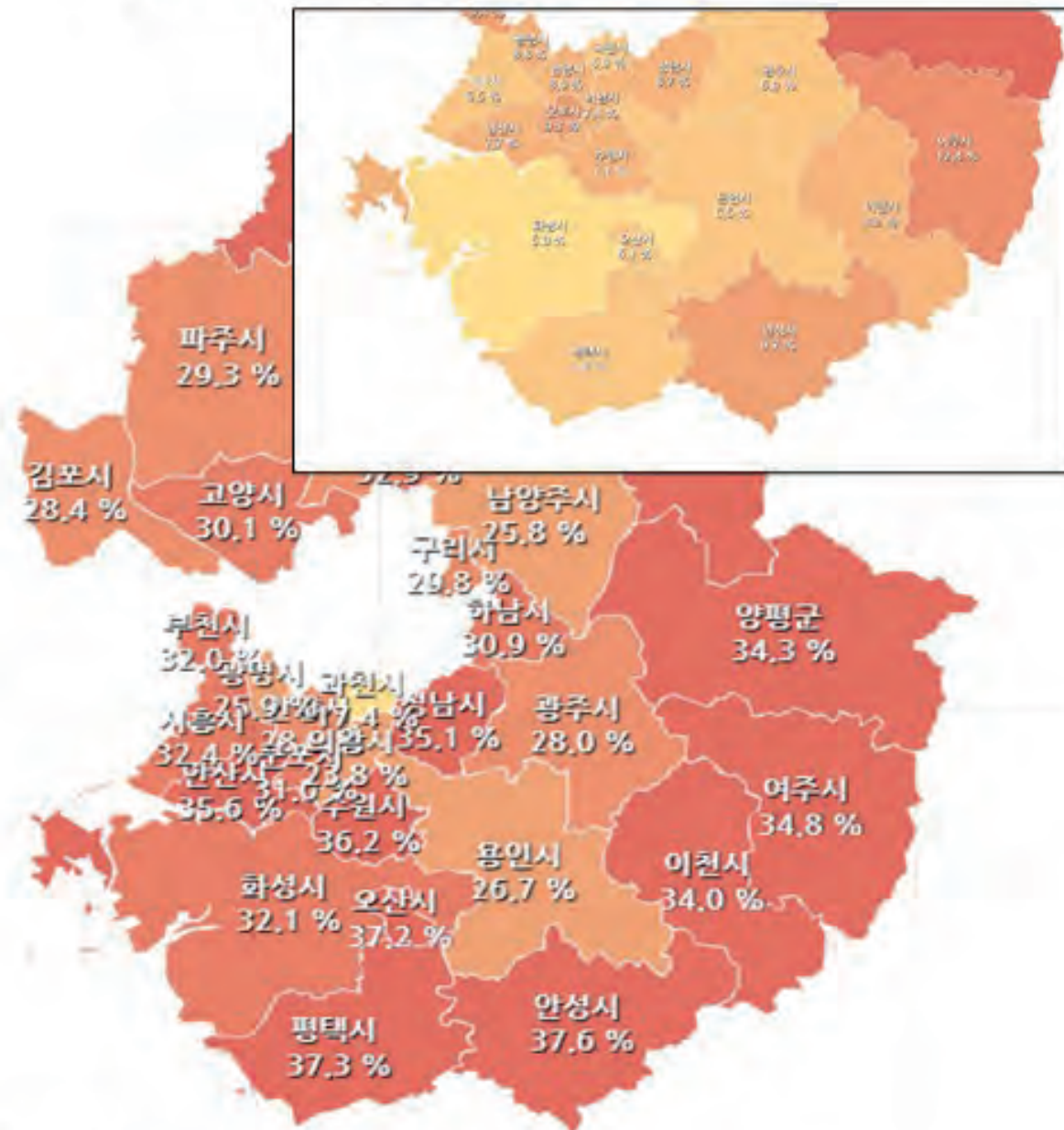
돌봄아동인구(2021-2023) (단위:명)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아동수(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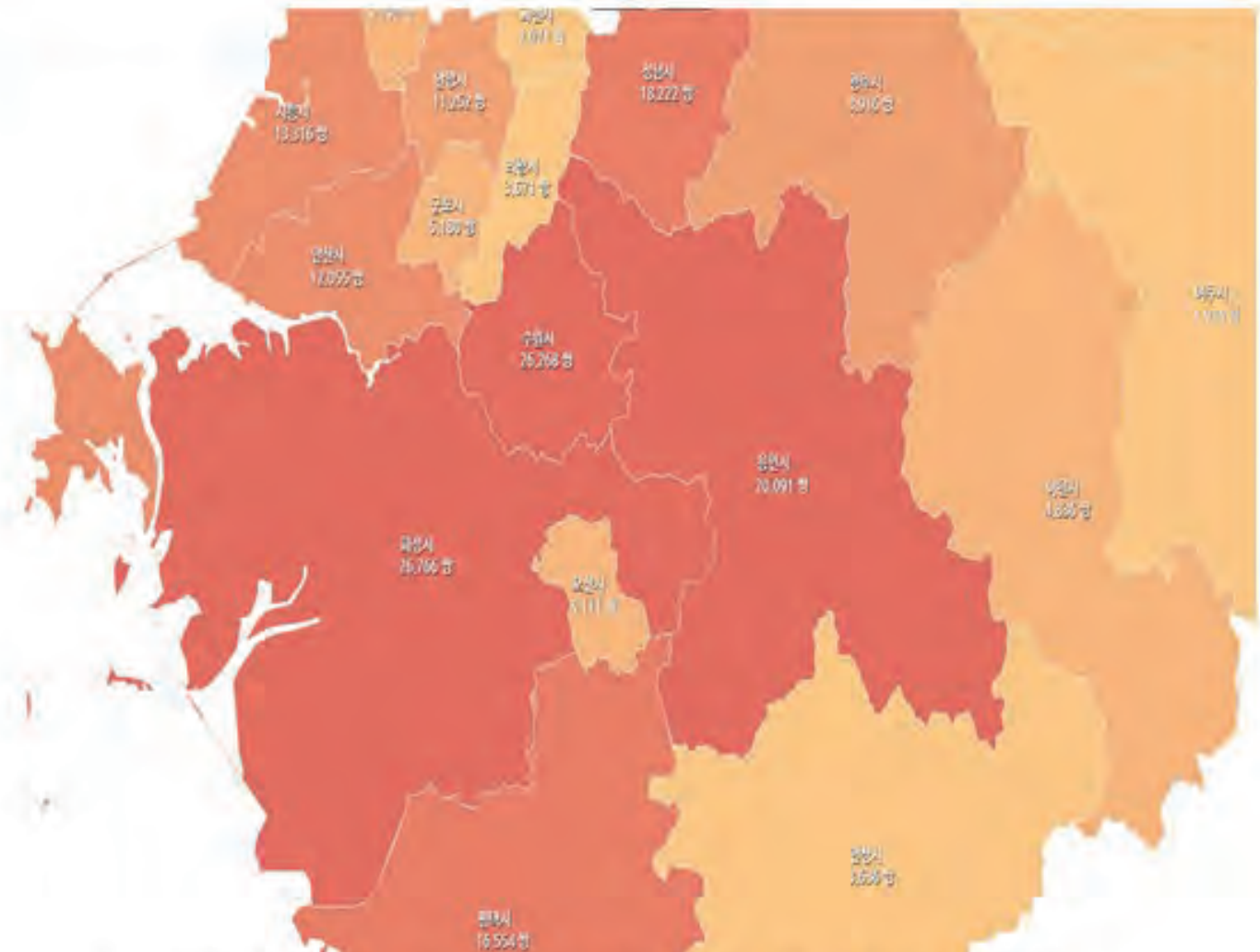


1인가구/독거노인비율



e-지방지표

신혼부부



- 국가통계포털, 기관별통계에 화성시 통계가 적은 편
- 기본통계, 사회조사(수원시-기본통계, 사회조사, 전 통시장및 상점가 조사, 주거실태조사,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기본통계 중 인구 18항목, 수원 21개 항목
- 서비스 전달체계 종합통계 미흡

III. 사회적 대응: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가족(문제)에 대한 인식

가족문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가족문제는 국가가 책임, 개입해야 한다

대응 관점

저출산, 고령화, 동거와 비혼출산 증가 등 가족다원화, 탈제도화 현상 강화
저출산 이슈와 위기감에도 탈가족화, 탈젠더화 보다는 저출산 극복 대응의 관점

이혼율증가, 동거와 비혼 출산 증가로 가족다원화, 탈제도화, 개인주의화 경향
탈성별화, 탈가족화,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적 가족정책 관점

지향: 선별/보편

여성정책, 보육정책, 아동정책, 노인정책 등 대상별 정책 추진
정책단위로서의 가족 관점보다는 계층, 세대, 성별, 가족유형에 대한 낙인, 차별

보편적 양육자 모델, 평등과 통합 지향
가족정책을 저출산 혹은 인구정책 차원으로 추진

1. 가족정책 추진과정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

- 일생활균형
- 아동돌봄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
- 생애전반 성, 재생산권 보장 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구축

- 고령층 빈곤 완화, 소득보장체계 구축
- 건강한 노후 및 안전한 돌봄 강화
- 일자리, 주거, 환경 등 고령 친화 환경으로 도약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노후생활보장체계
- 예방적 보건, 의료서비스 확충
-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

인구구조 변화
적응

- 다양한 가족 제도적 수용
- 연령통합적 사회준비
- 지역상생기반 구축
- 고령친화 사회로 도약

제1~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구분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06-2010)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11-2015)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16-2020)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21-2025)
비전	• 가족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 함께 만드는 행복가정 •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	• 모든 것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한 사회
정책목표	• 가족과 사회에서 남녀간, 세 대간 조화 실현 • 가족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증진	• 개인과 가정의 전생애에 걸친 삶의 질 만족도 제고 • 가족을 위한 가족을 통한 사 회적 자본 확충	•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남녀 모두 일·가정 양립 실 현	• 개인의 삶의 질 향상 •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 인구변화 대응 사회혁신
정책과제	• 가족돌봄 사회화 • 직장, 가정 양립 • 다양한 가족 지원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새로운 가족 관계 및 문화 조성 •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 가족가치 확산 • 자녀 돌봄 지원 강화 •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 성 제고	•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기반 조성 •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 정부-가족-지역사회연계를 통한 돌봄 지원 강화 • 남성과 여성, 기업이 함께 하는 일·가정 양립 실현 •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 회문화 조성 • 가족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 추진체계 강화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 회 구축 •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 되는 사회 •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 응

- 개인 삶의 질, 개별화된 삶의 권리
- 육아부담 대비 가족지원 투자, 양성평등 육아
- 성평등한 일터, 일·가정양립
- 교육시스템 개혁,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등 시민역량, 삶의 기반 강화
- 청년자립, 결혼, 출산 지원, 주거와 일자리안정
- 여성, 신중년 경제활동 지원 등 뉴노멀 대비 통합사회¹³

경기도 가족정책기본계획

정책영역	정책과제
가족다양성을 포용하는 정책추진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다양성 인식개선 통합적인 가족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가족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내실화
모든 가족의 역량 강화 및 생활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특성별 가족교육 강화 가족특성별 역량 강화 가족특성별 경제적 기반 강화
가족 다양성을 고려한 돌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기반 가족돌봄 체계 구축 아이돌봄의 질적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성평등한 가족문화 정착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2019~/2024)

비전	2025 세상모든가족과 함께: 모든가족,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
영역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2024 서울가족보고서 목차

1장 탄생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됨 의향 및 이유 · 부모됨에 대한 인식 ·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 및 이유 · 저출생 대응 정책: 방향 및 쟁점 	4장 가족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가족 · 전반적 가족관계 · 가족서비스 이용 · 미래지향적 가족정책: 방향 및 쟁점
2장 부모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 지원 정책: 방향 및 쟁점 ·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부모로서의 경험 	5장 청년응원 [2024 특별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애 및 연인관계 · 결혼의향 및 결혼에 대한 태도 · 다양한 파트너십에 대한 청년의 태도 · 청년의 웰빙 및 부모자녀관계
3장 부부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생활 및 부부관계 · 부부의 가사 및 돌봄 분담 · 결혼에 대한 태도 	부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서울가족 현황 · 2015-2023 서울가족보고서 · 서울지역 가족센터 현황

[2024 가족정책 공동심포지엄 자료집.pdf](#)

분석

저출산

- 서비스 인프라 위주로 현금지원 부족
- 양육 지원 불충분
- 가족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낮은 체감도
- 일가정양립 제도의 사각지대 여전

고령화

- 여전히 빈곤한 노후와 은퇴 후 소득 절벽
- 이른 은퇴, 다층 노후소득보장 미완성
- 살던 곳에서의 돌봄 부족
- 넓고 두터워지는 고령층 대상 기반 부족

제한적 탈가족화, 탈젠더화 등

- 성장중심 이데올로기, 여성노동시장 참여 정체
- 소득능력과 건강기준 지원으로 이중노동부담, 가족부양부담 증가
- 가족돌봄과 부양에 대한 사회적주체 중심

시사점(기초자치단체)

가족정책 범위 확대

- 돌봄, 상담, 교육 등 통합 서비스
- 공동체 소통 및 교류 공간 마련 등

유자녀가족 자녀양육지 원 강조

- 가구형태, 혼인 여부 무관, 자녀복지 보장 중점
- 가족다양성 포용 정책

일가정 양립 추진

- 가정내 남성역할 중요성 강조

중앙과 지방 정부간 공조 와 협업

- 지방정부 역할 확대, 지역특성 반영
- 서비스 전달체계 확대

IV. 화성특례시 가족정책

- 한국언론진흥재단(2024.8.9-2025.8.9)
- 가족, 가족정책, 가족서비스, 가족복지+화성시=486건(2024년 181건, 2025년 305건)
- 수원특례시 782건, 용인특례시 621건, 고양특례시 510건
- 화성특례시 가족정책은 나타나지 않고 아동학대, 사건 사고 중심으로 보도



1. 화성특례시 가족정책과 서비스

2040화성시장기발전계획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여성비전센터	성폭력가정폭력 통합 상담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화성시장장애인가족지원/ 상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시민과 함께, Eco-Smart City, 화성 • 5대 실천목표 및 추진전략 중 • 목표 5: 모두누림, 전 생애 포괄 복지 서비스 실현 -추진전략 1) 전 생애 안심·복지 공공 서비스 제공 -추진전략 2) 소외 없이 함께 누리는 포용적 복지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 화성형 청소년 대상 정책개발 • 화성시 전역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 다양한 가족맞춤 지원사업 • 1인가구 대상 사업 • 후기 동서부권 균형발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사업팀 -여성가족정책사업 개발 및 운영 -동서부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새일센터팀 -여성취창업지원사업 -취업정보망관리, 직업훈련교육사업 및 취업연계,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개선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위원회 운영, 누림데이 등 • YOUTH대학교 운영 • 화성시청소년네트워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가족 욕구, 복지 실현, 돌봄, 행복, 삶의 가치 • 장애인 가족지원 • 장애인 가족상담 • 주양육자 지원 • 보조양육자 지원 • 비장애형제자매 지원 • 지역사회네트워크

평생학습과, 복지정책과, 복지해당과, 여성다문화과, 주택관리과/교육체육국, 복지국, 주택국

2. 화성시 가족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영역	사업
양성평등	시민라운드테이블
	국제 여성의 날 기념행사
	내 삶이 바뀌는 꽃 중년
	우라가족 생태체험(사회배려대상)
	화성특례시 양성평등 실천 공모전
	함께 하는 가족, 성장하는 아이
	혼자서도 잘 먹는 건강 밥상
	부모성장교실
여성취창업 종합 지원	읍면동 찾아가는 취업특강, 이동상담
	여성구직자 대상 기술 및 역량강화 mbti 검사
	취창업페스티벌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인식개선 증진	가정폭력, 성폭력 인식개선 캠페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위원회 운영, 누림데이, 누퀴즈온더블럭
	YOUTH대학교 운영, 화성시청소년네트워크, 화성시청소년지도자대회

화성시 가족센터

사업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청년, 중년, 노년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아동 대상 사업(미술, 이중언어, 신문구독, 기초학습지원)
가족행복학교(찾아가는 부모교실, 청소년기/초등기, 아버지교실 임신출산 부모교실 등)
부모역할지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온가족보듬사업-사례관리, 가족상담,
특성화사업-다문화가족방문교육
아이돌봄지원사업-안전보호, 일가정양립, 돌봄자원 창출
육아나눔터 운영-가족사랑의날(얼쑤~놀쑤), 맞벌이 일가정양립지원, 가족어울림한마당

화성시장장애인가족지원/상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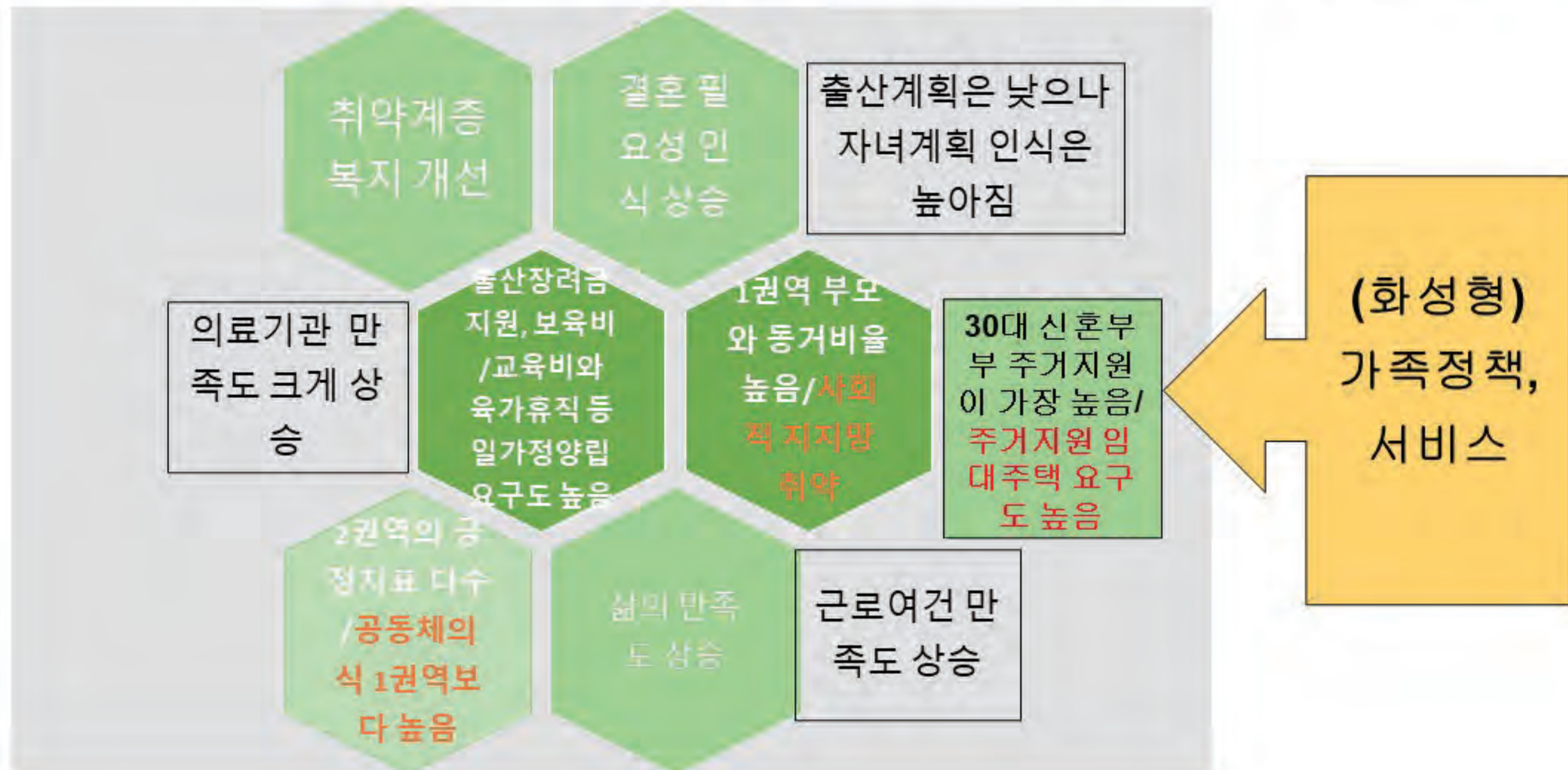
- 장애인가족 욕구, 복지 실현, 돌봄, 행복, 삶의 가치
- 장애인 가족지원
- 장애인 가족상담
- 주양육자 지원
- 보조양육자 지원
- 비장애형제자매 지원
- 지역사회네트워크

민선8기 공약

- 2분과 경제산업, 문화관광교육분과
 - 반려동물보건소
 - 중고생 체육복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편 지원
 - 청소년 문화시설, 장애인 평생교육
- 3분과: 제4차건강가정기본계획, 중앙정부 사업과의 연계성 강조 필요

- 평생교육
 - 평생학습, 시민대학, 시민강사 역량강화, 학습동아리 등
- 복지분야(가족복지)
 - 종합사회복지관, 지역복지, 긴급지원, 생활보장, 대상별 복지 등
- 가족정책분야
 - 여성단체, 여성가족청소년 재단, 여성비전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폭력피해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등
- 주거복지: 임대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 지원 등

3. 화성시 조사결과: 사회조사, 성인지통계 등



4. 가족정책 전달체계

여성가족부/경기도

정책기획관	여성정책국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권익증진국
기획재정담당관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과	가족정책과	권익정책과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성별영향평가과	청소년활동진흥과	가족지원과	성폭력방지과
국제협력담당관	여성인력개발과	청소년활동안전과	가족문화과	디지털성범죄방지과
정보통계담당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청소년자립지원과	다문화가족과	가정폭력소통방지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가족친화서비스과	폭력예방교육과
		청소년보호환경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화성시

복지국	교육체육국
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 우
생활보장과	평생학습과 시
장애인복지과	도서관정책과 도
여성다문화과 우	체육진흥과 우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청년청소년정책과 무	
중장년노인복지과	

수원시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아동돌봄과 이주민정책과

용인시

교육청년여성국	문화체육관광국	사회복지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청년정책과 여성가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보육과

인구, 가족변화 대비 법규 현황(중앙, 지자체)

구분	인구정책	가족정책과 서비스	화성시 조례	비고
근거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청년기본법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촉진법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가족친화사회조성촉진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그외 사회복지사업법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장애인가족 대상/ 성남시 장애인가족 대상,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대상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화성시 출산 지원 조례	수원시 3건, (장애인가정, 대상 2건)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화성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6건	폭력관련 5건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청년 지원 기본계획 (2026 시행예정)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돌봄노동자, 노인맞춤돌봄 관련 총 4건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구정책과 가족정책 근거법률의 연계 및 통합성 확보 필요화성시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중 여성가족 범주 없음특정의 가족유형 대상 조례 마련 필요				

22

가족정책 방향(참고)

전체 체계도					
국기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원칙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5대 국정목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 중심의 외교안보
23대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2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3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한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AI 3대 강국 도약 2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3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4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5 성장을 복돋는 금융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2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3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4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2 내 삶을 돌보는 복지 3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5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6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장동력 7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8 함께 누리는 장의적 문화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2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3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123대 국정과제	19개 과제	29개 과제	23개 과제	37개 과제	15개 과제
564개 실천과제	79개 과제	137개 과제	113개 과제	173개 과제	62개 과제

- 다양한 가족형태 포용, 돌봄 공백 대응, 성평등가족부 추진

국정기획위원회 가족 관련 주요 과제		
과제명	주요 내용	관련 국정목표
양육비 이행 강화	양육비 채무자 제재 강화, 소득·재산 조회 확대, 이행관리 강화	기본이 튼튼한 사회
한부모·조손가족 지원 확대	청소년 한부모 의료비·주거비 지원, 자립역량 강화	기본이 튼튼한 사회
다양한 가족 형태 포용 정책	1인가구, 비혼·동거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적 인정 및 지원	기본이 튼튼한 사회
가족돌봄 공백 대응 체계 구축	위기아동·청년 대상 돌봄·상담·자립지원 강화	기본이 튼튼한 사회
가족친화적 노동환경 조성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가족친화기업 인증 확대	기본이 튼튼한 사회
다문화가족 통합지원 강화	언어·문화교육, 자녀교육, 지역사회 연계 강화	기본이 튼튼한 사회
출산·육아 지원 확대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보육시설 확충	기본이 튼튼한 사회

5. 화성시 가족정책에의 시사점

- 미래, 혁신, 조화, 지속가능, 균형발전, 계획도시, 역사문화, 안전 등의 핵심키워드 안에 가족 관점 부재
- 가족관련 보도량은 경기남부 특례시의 절반 정도 수준, 사건사고가 대다수를 차지
- 대내외 평가의 불일치

- 대외: 경기도가족정책 점검결과 31개 시군중 시행계획 범위, 다양성, 누락요소, 보편성, 다문화가족사업, 남성맞춤형사업 등 다양성 확보, 2세대 핵가족 중심

- 대내: 가족복지는 있으나 가족정책 관점 미흡, 가족정책 전달체계 불명확, 화성시사업과 정책에 낮은 인지도(37.7%), 홍보체계 강화 필요

- 화성시민의 가족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니즈 파악 및 정책 방향 모색 시점
- 생애주기, 권역별 가구유형 분석과 기본적, 보편적 서비스를 반영하는 정책 지향

V. "함께 만드는 가족정책, 시민의 목소리"

2025 시민 라운드테이블 화성시 여성가족정책 사업 발굴 시민참여사업



2025
시민라운드테이블
참가자 모집

모집기간 2025. 2. 28.까지

라운드테이블 진행 하루가기

화성시 여성가족정책 사업 발굴을 위한 시민참여사업

주 제	내가 원하는 화성시 여성가족정책과 여성가족 사업은?	참여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자격	주요정책 관심있는 누구나 ※ 18세 이상으로 단회 신청 가능		1) 02-312-8712 (여성가족사업팀) 주소: 화성시청 3층 303호 신청 가능 시간: 오후 2시~5시
진행방법	전국 18개 시도에서 6~7명 그룹별 토의활동		2)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작성 필수 - 활동신청서: 신청서(별첨) 3종, 사무실 여성가족정책사업 담당자 (02-312-8712) 1450
문의	031-267-8712 (여성가족사업팀)	참여혜택	공식시간 제공, 소정의 기념품 증정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여성비전센터

4. 시민라운드테이블 가족, 여성 등 관련 의견 발령 및 정리
1. 문화체육관광부 관계 개선 프로그램 운영-관계개선, 정책지원
2. 다양한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활동 관계 개선
3. 여성가족부의 커뮤니티와 관련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4. 참여자가 집단지향 여성 맞춤 캐어 집단 필요
5. 여성가족부에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여성가족정책
6.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 교육 프로그램 개발(부담금 지원 교육)
7. 세대간 교류 교육 교육, 가족간의 교류
8.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성교육 지원(예, 장례식장 체험) - 청소년 의견
9.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10. 연령별로 지원가능한 정책 둘러볼라
10. 여성청소년은 성리대 구입 비용 지원 여성청소년은 청소년대에 지원 없이 육아 지원으로 넘어감
11. 자립 준비 여성 청년 및 여성 청소년 지원
12.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13.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14.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15.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16. 한 부모 가정 등 소외계층 가정에 관심 가져줄 것
17. 남성 현무로 가정 및 육아정책 아바를 위해 직장실에 어린이 센터, 가족과 관련된 설치 (장애통합성능 가족화장실로 확대 사용)
18.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19. 여성 1인 가구 대상 안전 안심 장비 대여
20.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21. 여성의 육아 참여 참여 참여인 및 프로그램 개발
22. 일상생활 교육,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23. 아이들의 사회적 관계 기술 향상 교육(사회성 교육)
24. 아이들을 위한 맞춤 교육
25. 가족의 정의를 재정의 후, 가족정책 수립 필요성
26. 연령대 별로 다양한 1인 가족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
27.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28.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29. 소외된 사람들 대상 주기적인 교육 실시하여 민간의 활동 참여-정서적 교육
30. 어르신에게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
31. 산후조리원 및 각종 생활양식 센터(산후조리원, 생활양식 센터, 산후조리원)
3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33.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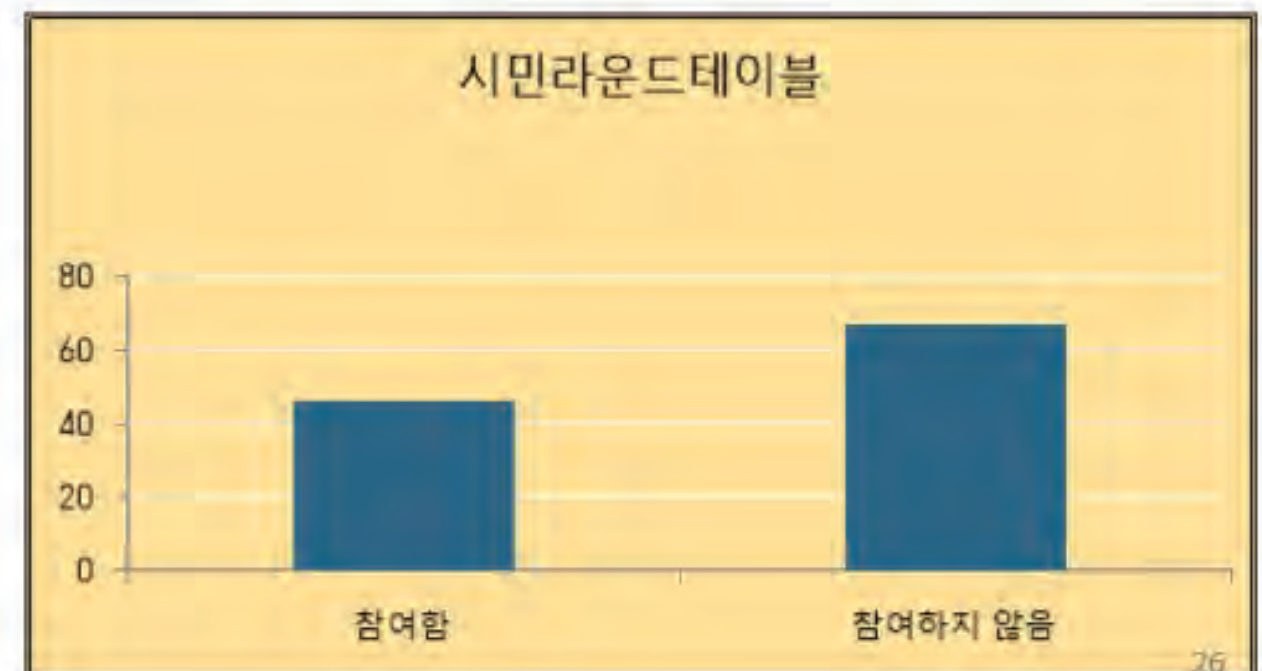
향후 여성가족정책 및 사업의 방향성

- 여성 경쟁력 강화-98대 국정과제,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88대 국정과제,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 가족간 교류와 소통 등 관계개선
-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 돌봄(육아체계 강화-87대 국정과제,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 육아 환경 조성'
- 실질적 양성평등-97대 국정과제,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To Be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가족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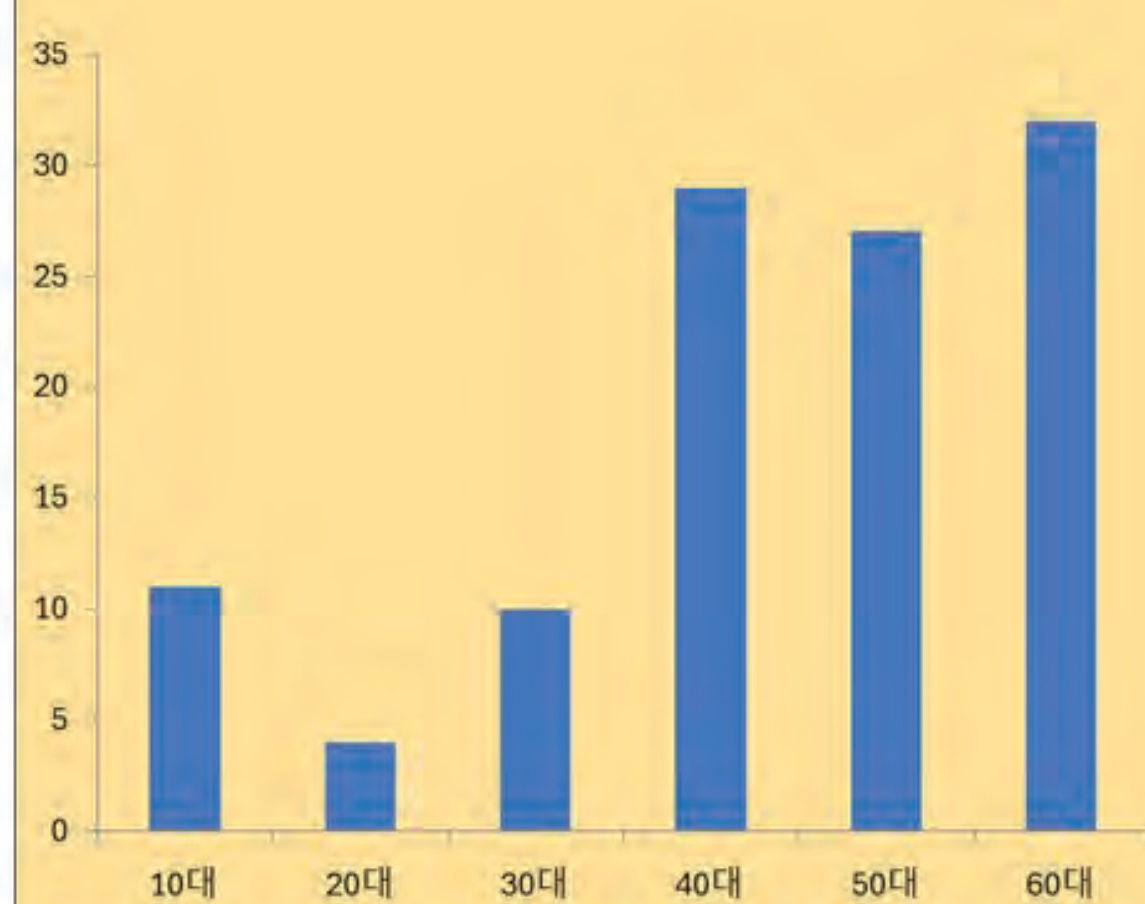
1. '함께 만드는 가족정책' 설문조사

- 대상: 시민라운드테이블 참가자,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프로그램 참가자
- (봉담,매송,팔탄,비봉,병점,진안,반월,기배,화산/동탄 1동 ~ 9동/향남, 남양, 우정, 마도, 서신, 장안, 송산)
- 기간: 2025.8.4-2025.8.10
- 방식: 온라인 기반 설문
- 참여자 총 113명(라운드테이블 46명)
- 내용
 - 화성시 인구, 가족 동향에 대한 인식
 - 화성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
 - 화성시 가족정책(돌봄에 대한 책임, 다양한 가족, 일가정 양립, 공동체문화, 시민역량, 양성평등과 가족)의 시급성
 - 화성시 가족정책의 방향



분석결과

연령대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문제 중점 가족정책



화성특례시 인구와 가족현황 특징



인구,가족변화에서 우선 고려할 것



화성특례시 저출산 가족정책중 중점 분야



화성시 고령화 가족정책 중점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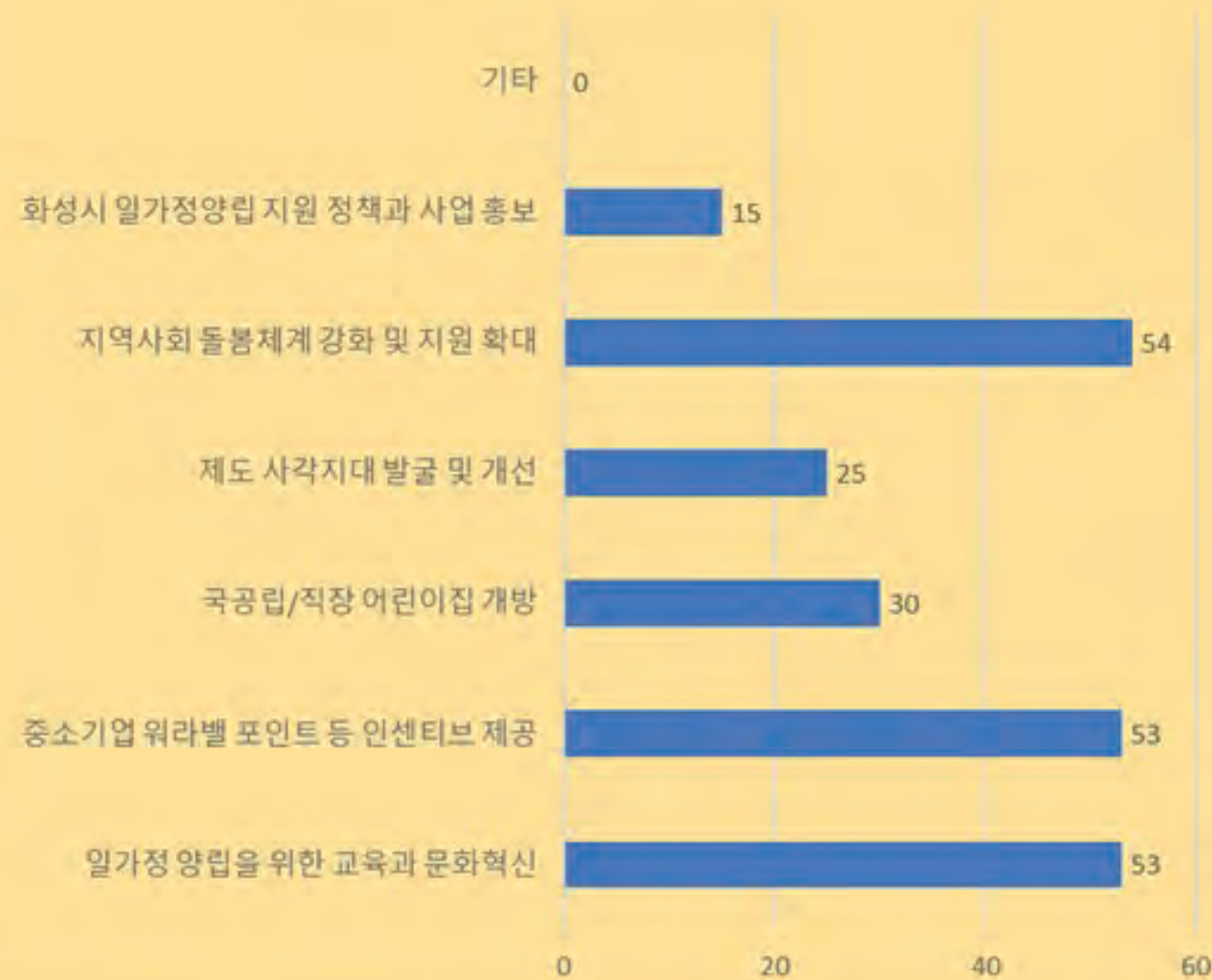
화성특례시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정책



화성특례시 '다양한 가족정책' 우선 강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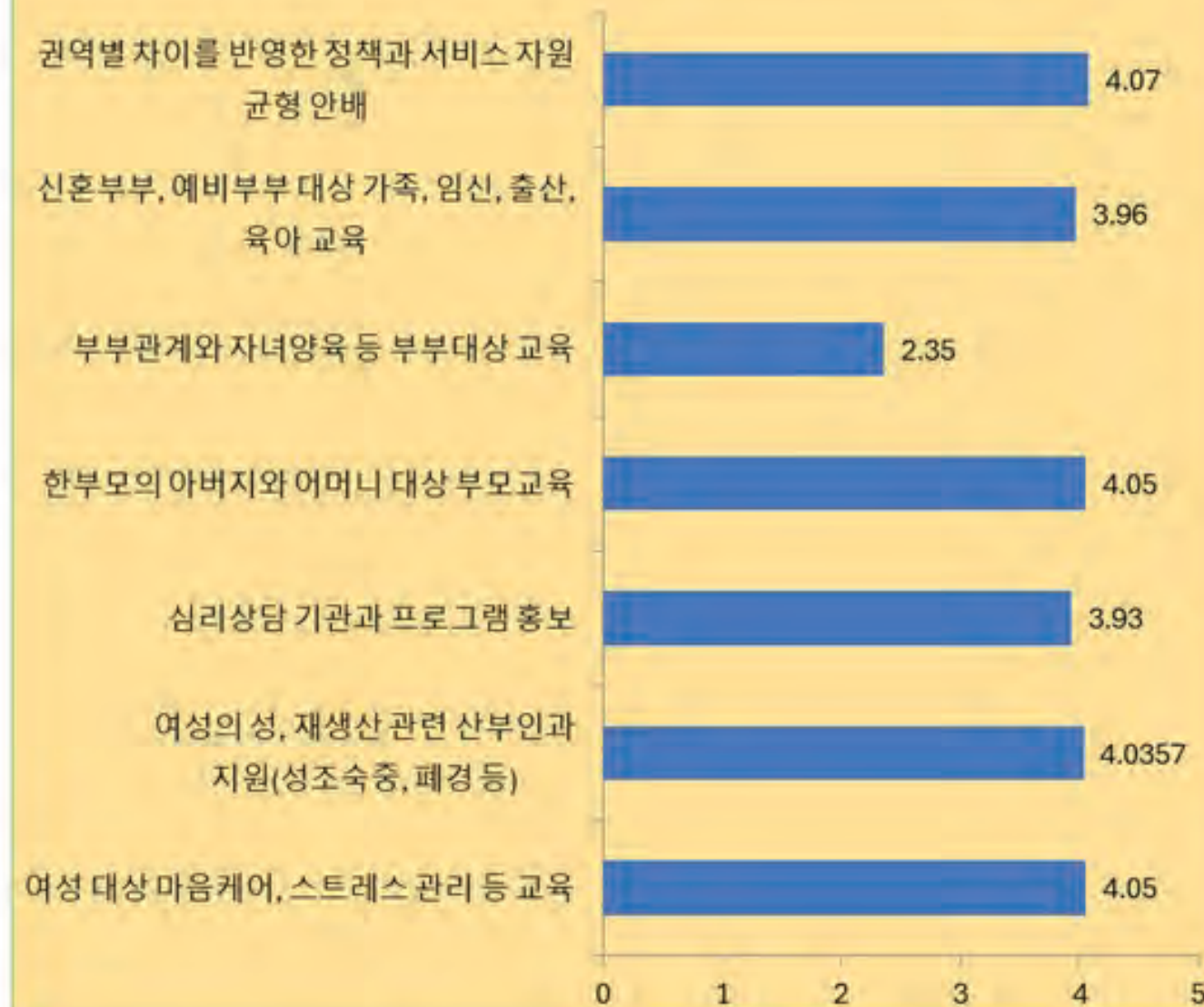
화성시가 '일가족 양립'을 위해 중점을 뒀야 할 정책



화성시 '시민역량 강화' 중점 정책



양성평등과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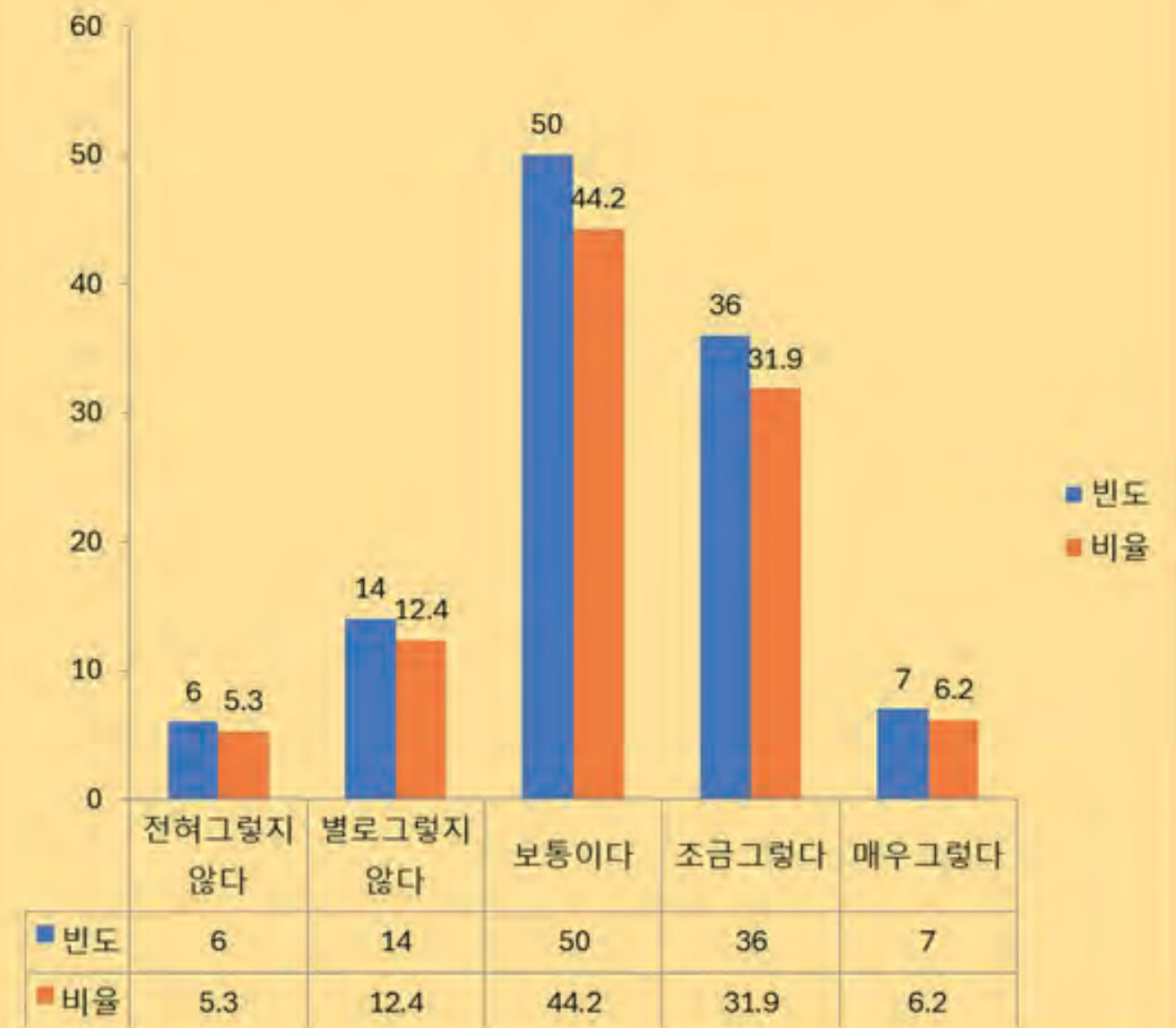
가족,이웃간 소통 및 정서지원



공동체문화



인구정책 대응을 잘하고 있는가?



경기도가족정책기본계획 중 화성특례시 채택 정책



화성특례시 가족정책 우선 개선 분야



기타의견

가족돌봄 정책

- 맞벌이가족 서비스,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영유아 돌봄 위주, 아동과 청소년 지원과 프로그램
- 휴일 노인돌봄, 평일 시간돌봄서비스, 치매어르신 대상 서비스 확대

일가정양립 가족정책

- 맞벌이가족 서비스 한부모가족 서비스 확대
- 노년 육아 지원

다양한 가족 포용과 지원 정책

- 다문화 친구와의 소통프로그램 아동수당 확대,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 생애주기별 담당신설, 예산 확보

소득보장 및 보편 정책

- 아동수당 확대 노년 육아 지원
- 소득없는 보편서비스

공동체문화

- 공동육아, 돌봄 품앗이 등 이웃 네트워크 활성화 시민의견 충분히 반영 및 홍보 강화
- 세대통합프로그램, 동탄중심에서 권역간 균형 지원

홍보강화

2. 시민의 목소리로 함께 만드는 화성특례시 가족정책 방향

-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비전과 장기방향과의 일관성을 갖춘 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
 - 사람, 시민, 문화, 예술, 지역, 교통, 환경 등 가족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시의 관점과 관심에서 나아가 가족관점과 통계, 정책분석 등 확대
 - 문화여가에 대한 시민 의견 반영, 이제 가족으로 관심의 이동 및 확대
- 인구,가족의 변화를 포괄하는 가족다양성, 성평등 관점, 가족내 개별구성원 욕구 반영
- 지역적 특성 반영: 화성특례시 4개 일반구 설치 확정... 15년 숙원 해결 (2025.8.24 디지털타임즈)
- 가족유형이나 특성과 무관한 보편성, 기본을 반영하는 평등한 가족정책
- 가족정책과 서비스 전담 체계 구축 및 전달체계 확대
- 가족정책과 서비스 관련 시민의견 적극 반영 및 홍보 강화

참고문헌

- 고선강, 2022, 가족센터의 발전 방향 및 과제, 서울가족센터, 한국가족정책학회, 변화하는 가족정책, 가족센터의 역할과 과제.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1, 경기도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현숙, 정진화, 2019, OECD 국가들의 출산율 결정요인: 가족친화정책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에 대한 분석, 여성경제연구, 16(1):27-50.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20, 기초자치단체의 가족정책 방향과 전략.
- 서울특별시, 서울여성가족재단, 2020, 제2차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 학술연구
- 서울시가족센터 외, 2024, 2024가족정책 공동 심포지엄: 저출생시대, 서울형 가족정책.
- 서울시가족센터, 2023, 2023 가족정책 수요 및 만족도 조사.
- 여성가족부, 2025,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 대한민국정부, 202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 여성가족부, 2021, 2025 세상 모든 가족과 함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 진미정, 2022, 새정부 출범에 따른 가족정책의 방향성과 과제, 서울가족센터, 한국가족정책학회, 변화하는 가족정책, 가족센터의 역할과 과제.
- 통계청, 인구총조사, 장래인구추계 등
- 통계청 통계개발원, 2021, 한국사회의 혼인·출산 특성과 이행
- 화성시, 2024, 2024 화성시 성인지 통계, 화성시.
- 화성시 여성가족사업팀, 2025, 시민라운드테이블 운영결과 보고, 화성시
- 화성시, 2024, 2024 화성시 사회조사, 화성시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 한국가족협회 외, 2025, 인구절벽을 넘어서는 가족정책의 힘: 변화하는 시대의 가족센터 역할 재정립.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화성시가족정책:

따뜻하고(Warm), 포용적이며(Inclusive), 돌보는 사회(Caring Society)를 꿈꾸며

수원대학교 차승은

발표 개요

1. 시민의 목소리와 욕구
2. 한국가족의 특성과 변화의 방향
3. 가족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들
4. 가사 및 돌봄노동의 실천현실
5. 정책과 시민의 실천전략
6. 맺음말

라운드테이블 시민 의견 5대 범주

- 1세대 간 관계와 소통
2. 여성·가족 지원 확대
3. 돌봄 인프라 개선
4. 양성평등과 인식 개선
5. 사회적 안전망·문화 프로그램

핵심 발견: 시민들의 욕구는 결국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한국가족의 변화에서 특성

인구·가족 구조 변화

- 소가구화 현상
- 맞벌이 부부가구 증가
- 분거가구 증가

소가구화와 일상생활에서 돌봄필요 증가

가구내 돌봄가용성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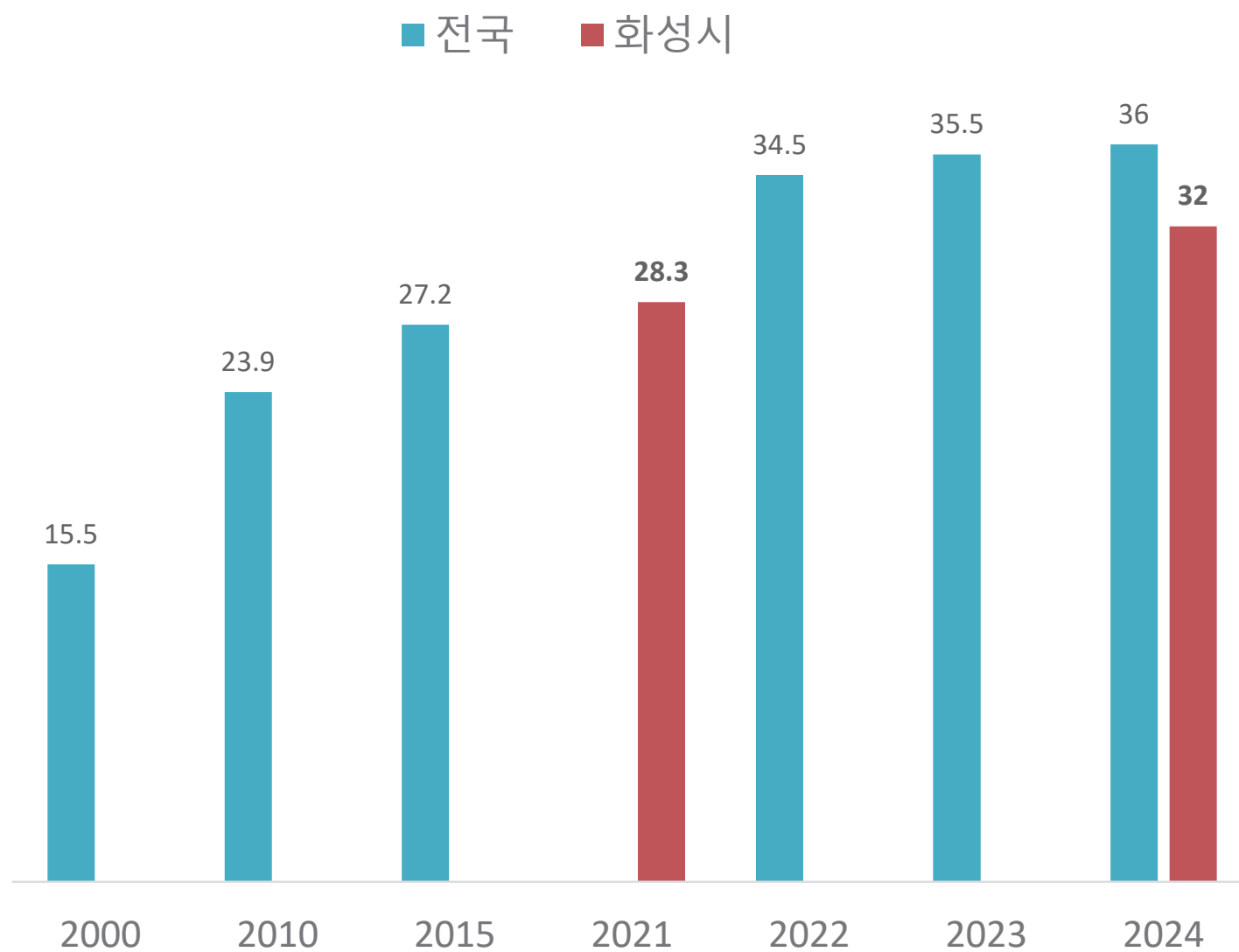
- 이주배경 가족의 증가
- 세대간 차이와 격차 증가

가구내 다양한 가치관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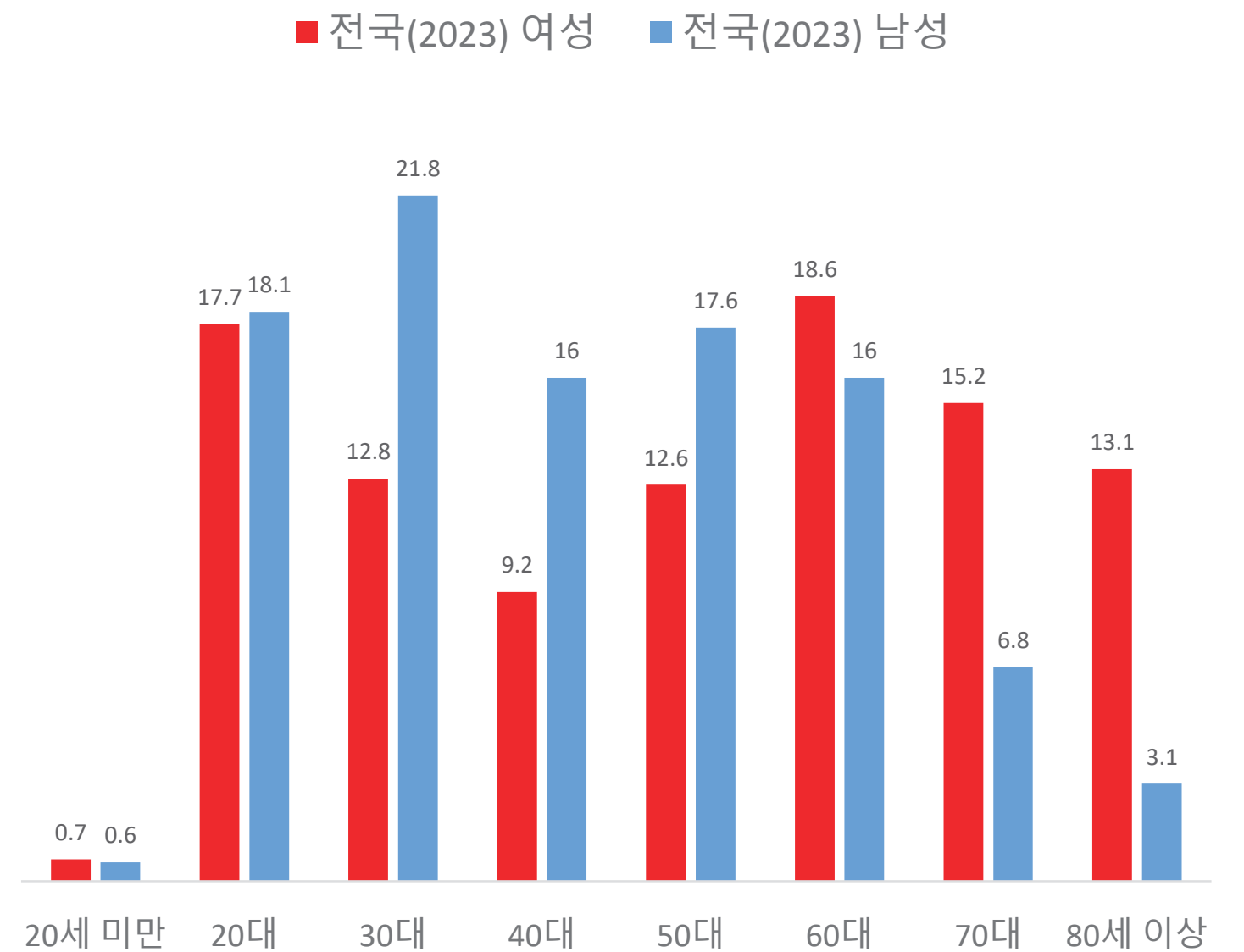
고령화 가속화

늘어나는 미니가구, 1인가구

일반가구에서 1인가구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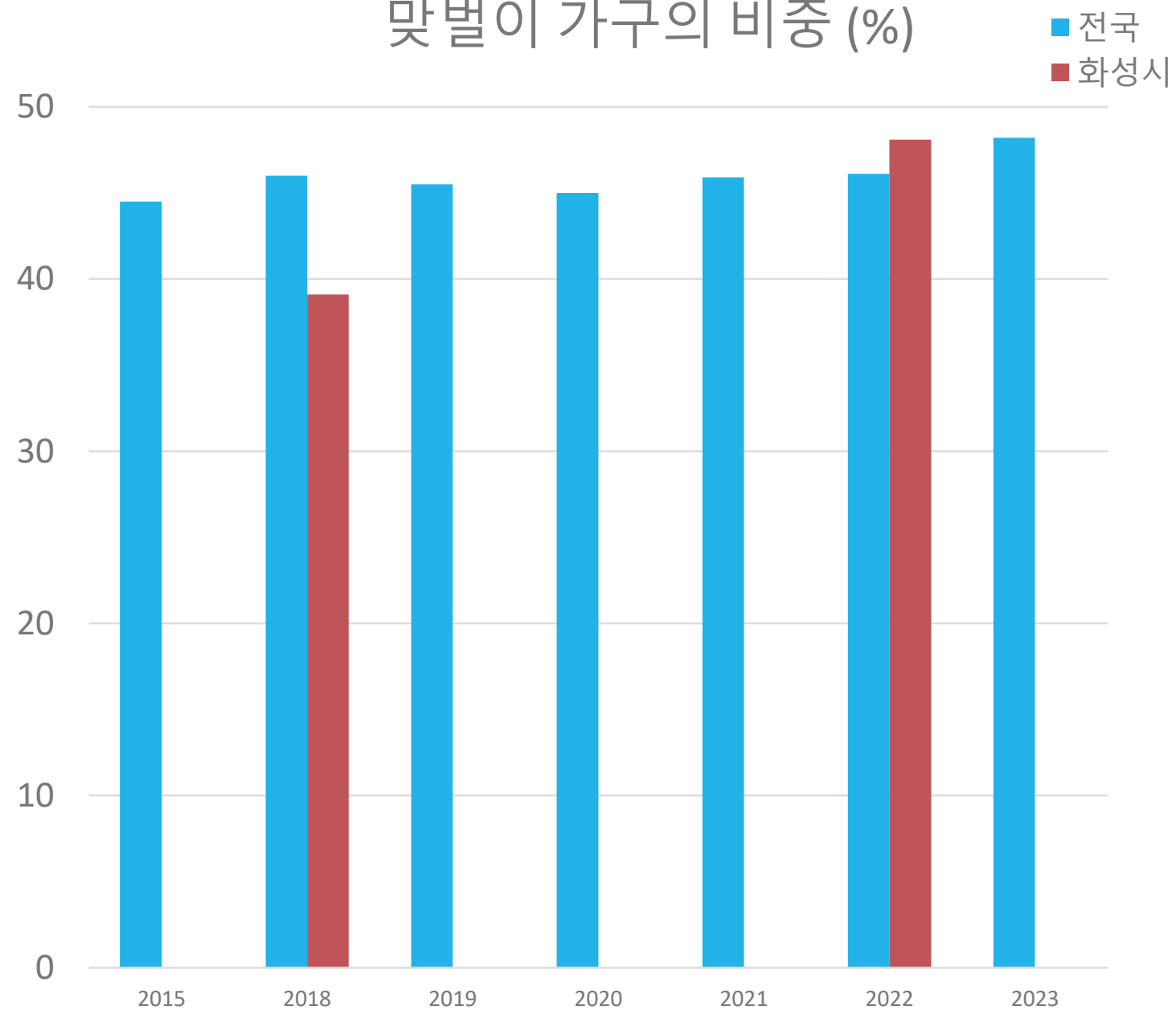


1인 가구 연령분포: 남성, 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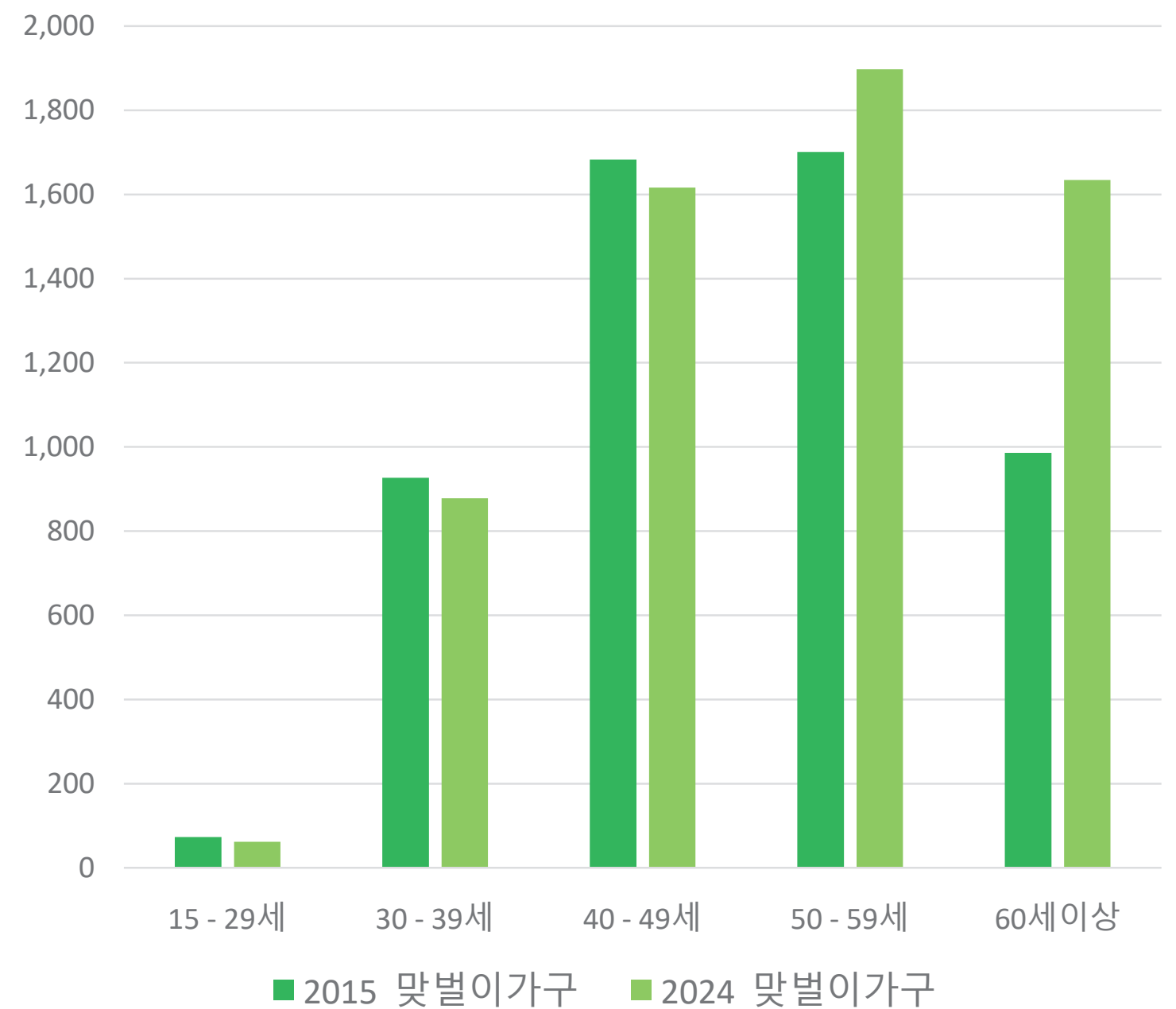


맞벌이 가구와 그 현실

맞벌이 가구의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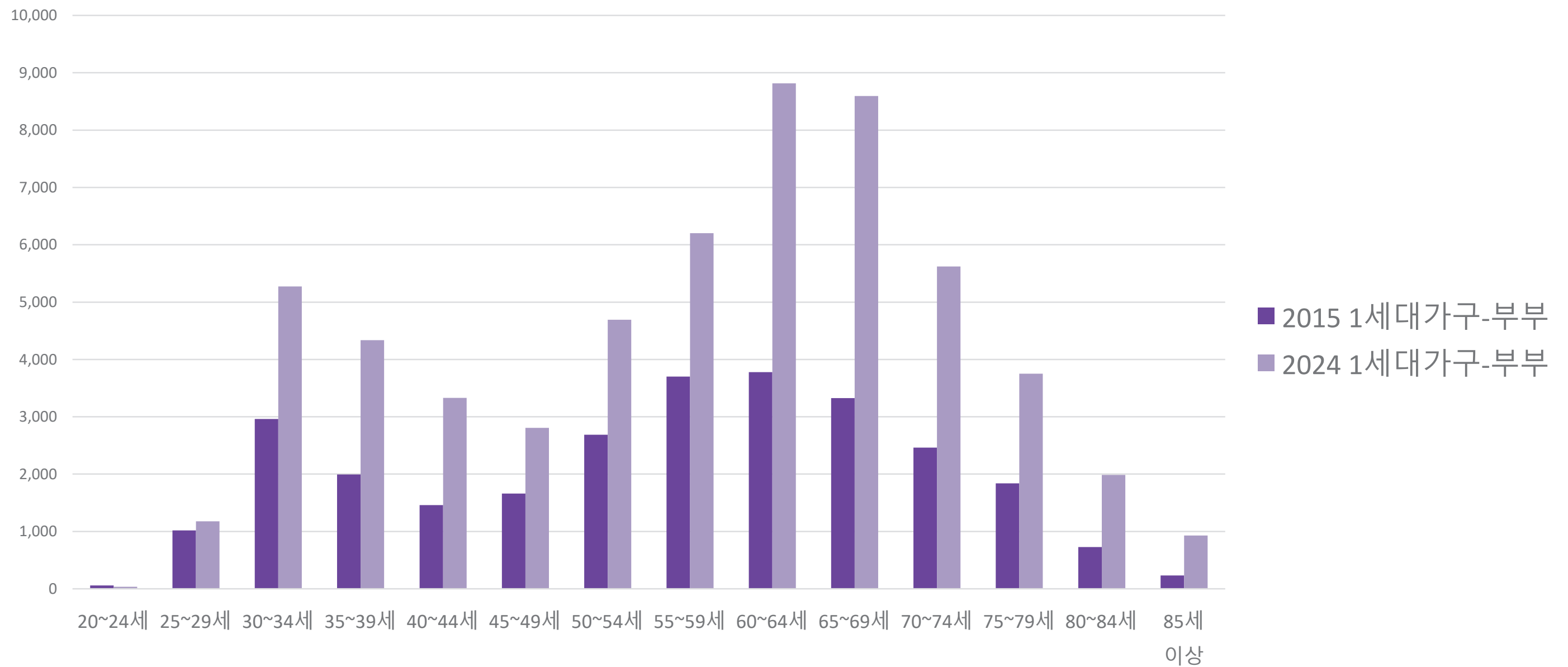


전국 맞벌이 가구수: 연령별 (단위: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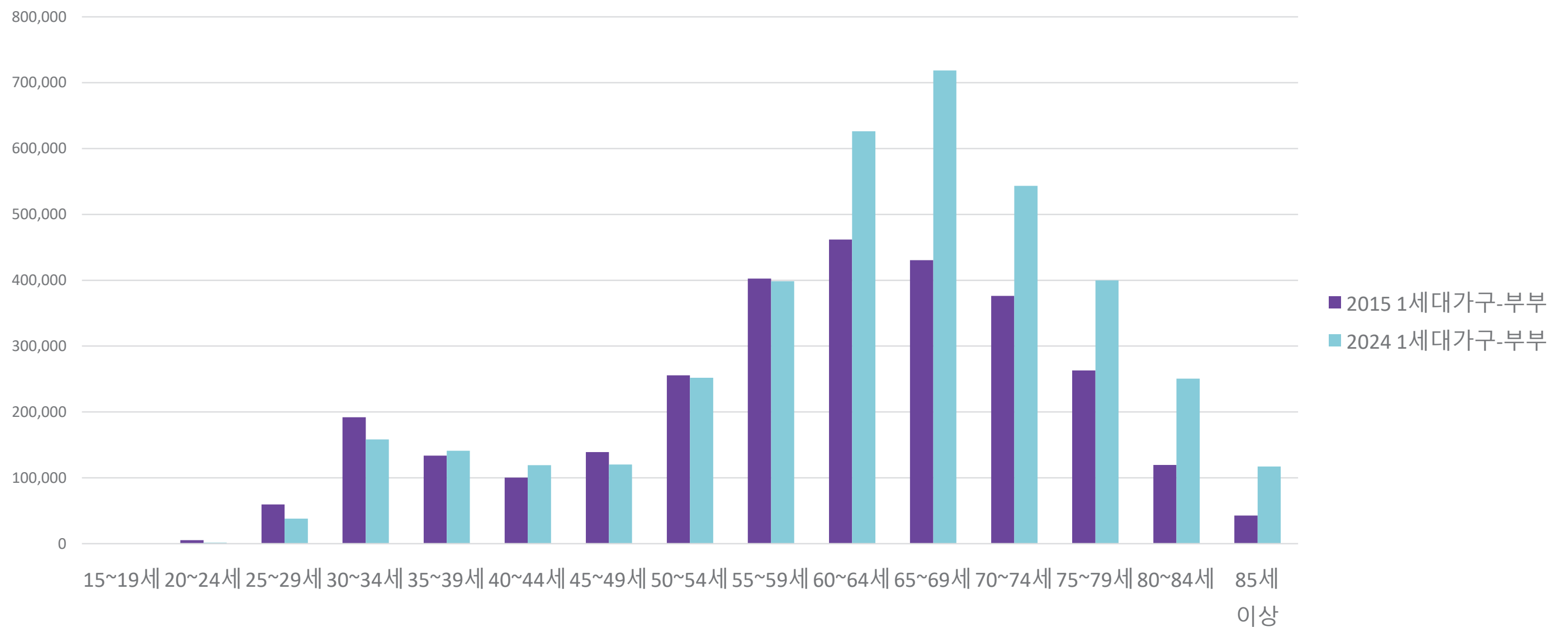
부부만 사는 가족, 진실은?

화성시, 1세대 부부가구수, 연령별 분포: 2015, 2024



부부만 사는 가족, 진실은?

전국 1세대 부부가구 가구수 연령별 분포: 2015, 2024



제도적 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정책, 다루어야 할 미완의 주제들

한국가족정책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들

1. 가족내 젠더 불평등 해소

- 성별 가사노동/돌봄에서 젠더격차
- 폭력과 학대 갈등의 문제

결과: 초저출산, 돌봄 공백 심화

2. 세대간 연령간 갈등 증폭

- 가치관 혼란
- 친밀감을 위장한 통제와 억압

미래 방향:

- 서구 성장 중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함
- 한국 사회의 문화·가족 구조에 맞는 자체 모델 필요
- 공동체 기반·연대 중심의 우리만의 길 설계

3. 개별 가족의 돌봄 가용성 감소

- 돌봄가용력 감소
- 돌봄의 가치과 역량감소

한국가족의 변화 속에서 화성시 가족의 위치와 특성

돌봄 수요 변화

- 아동 중심 → 전 생애 주기 돌봄 확대
- 고령층·중년층·청년층 포함 전 세대 돌봄 정책 필요



돌봄의 개념, 및 돌봄 개념의 확장

돌봄의 속성: 신체적 수발과 서비스만이 아닌 “관심” 영역까지 확장하는 포괄적 행위 (관계적 행위와 사회적 연대)

돌봄의 속성의 전환: 가족 내 해결 →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

국제적 흐름:

- OECD·UN: ‘공유 돌봄(Shared Care)’ 모델 강조
- 북유럽: 가족·이웃·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3중 구조 (간혹 시장도 포함한 4중구조를 권고)

정책 변화 필요성: “돌봄”이란 복지·주거·문화·교육·안전을 통합하는 전방위 정책으로 인식

“통합”과 “포괄적 서비스”를 위한 “전담부서” 필요.

돌봄의 다이아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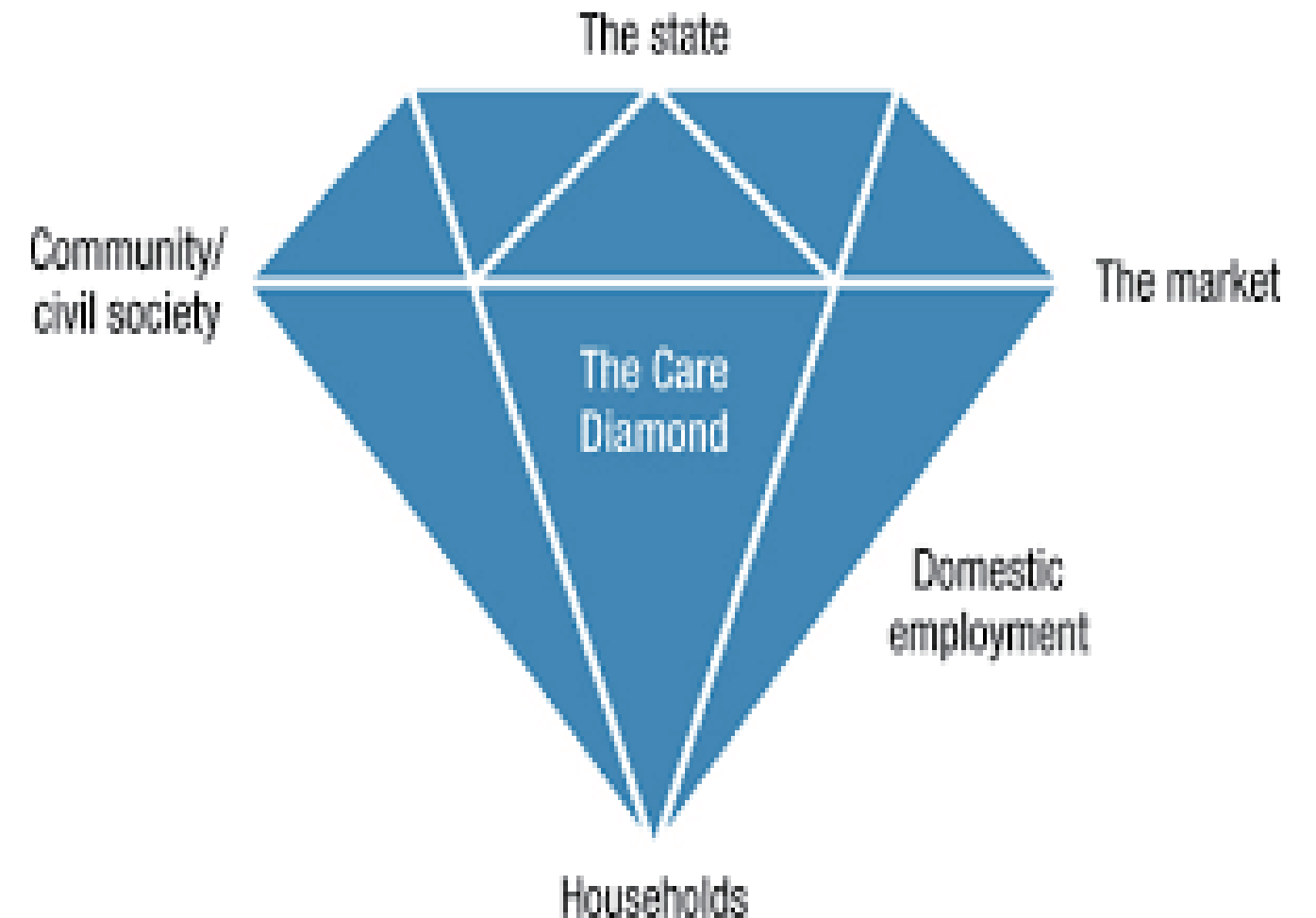
가족·친척(Family) – 비공식·무급 돌봄

시장(Market) – 유료 돌봄 서비스

국가(State) – 공공 정책·제도

비영리·지역사회(Community) – 자원봉사·마을 공동체

→ 네 축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따뜻한(Warm) 돌봄 사회의 기반



각 주체가 중첩·보완적으로 기능할 때, 돌봄의 공백을 방지하고 체계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상징.

돌봄 정책에서 필요한 에서 4개의 R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과 "행위"를
인식하는 노력

돌봄에 투입되는
과도한 에너지와
시간을 줄이는 노력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노력

전체사회가 돌봄을
함께 수행하고
이어가는 노력



Recognize

Initiatives that increase visibility and recognition of paid and unpaid care and domestic activity as "productive" work that creates real value and contributes to economies and societies.

누가 돌봄을 수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강도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Reduce

Products and initiatives that reduce the time and burden of unpaid care and domestic work.

돌봄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Reward

Products, services and initiatives that ensure that care and domestic workers are paid fairly and can progress in their careers, providing them with financial reward and security.

사회적으로 "돌봄"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하고 보상할까?



Redistribute

Services and initiatives that:
1) Redistribute care work from individuals to public and private sector entities, and
2) Redistribute care and domestic work within the household

어떻게 하면 사회 많은 사람들이 돌봄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가사노동, 누구의 일인가?

요즘 누가 가사노동을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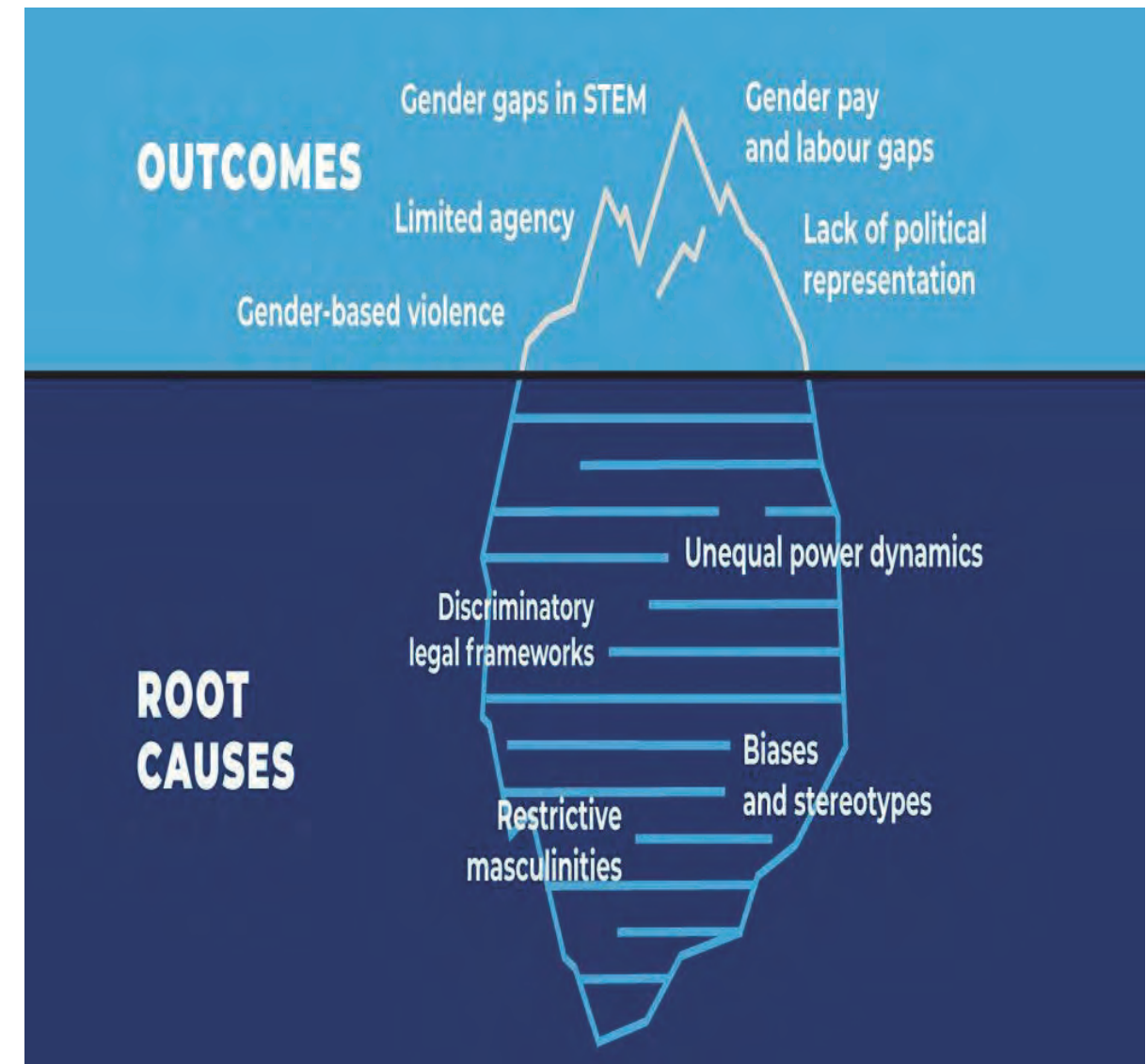
성 불평등의 빙산

수면 위(겉으로 드러난 갈등): 가사 분담 불평등, 육아 참여 불균형,

성별임금불평등, 여성정치인의 수적 열세, 과학기술에서 여성 소외현상

수면 아래(숨겨진 구조적 요인): 암묵적 침묵, 성 역할 고정관념, 권력 불균형, 의사결정 배제, 희생 강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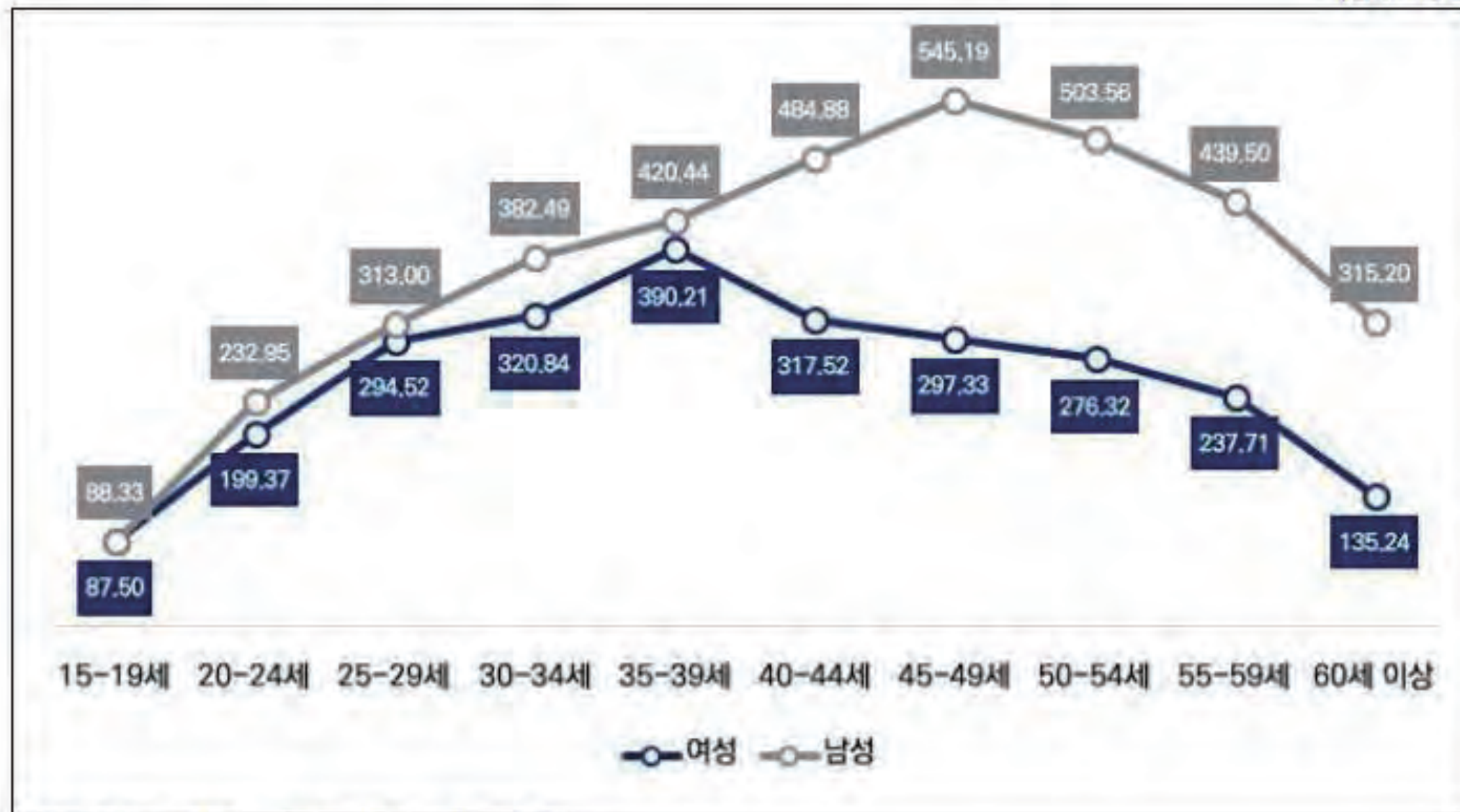
- 가족내 여성의 지위 향상은 남성에게 상대적 불평등을 야기할까?
- 페미니즘의 확산은 남성에게 불리한가?
- 가족정책은 표면적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깊은 층 (가족 내 누군가의 희생이 존재하는가?) 를 알아볼 수 있어야
(e.g. 여성, 남성, 아동, 노인, 환자, 환자를 돌보는 가족, 이주배경을 가진 가족)



성불평등의 현실

[그림 3-41] 연령별 평균임금 (2023)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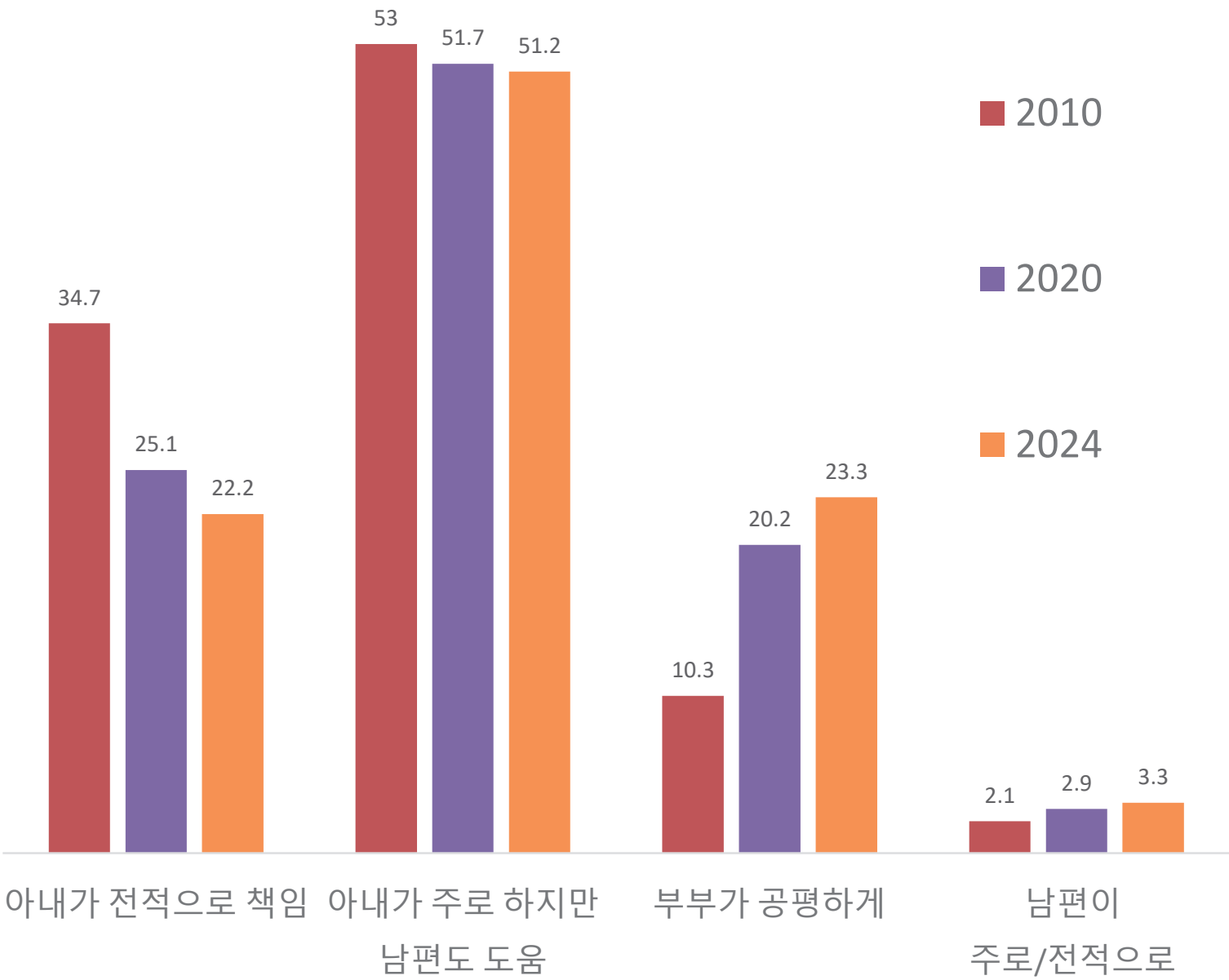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3),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주: 1) 2023년 하반기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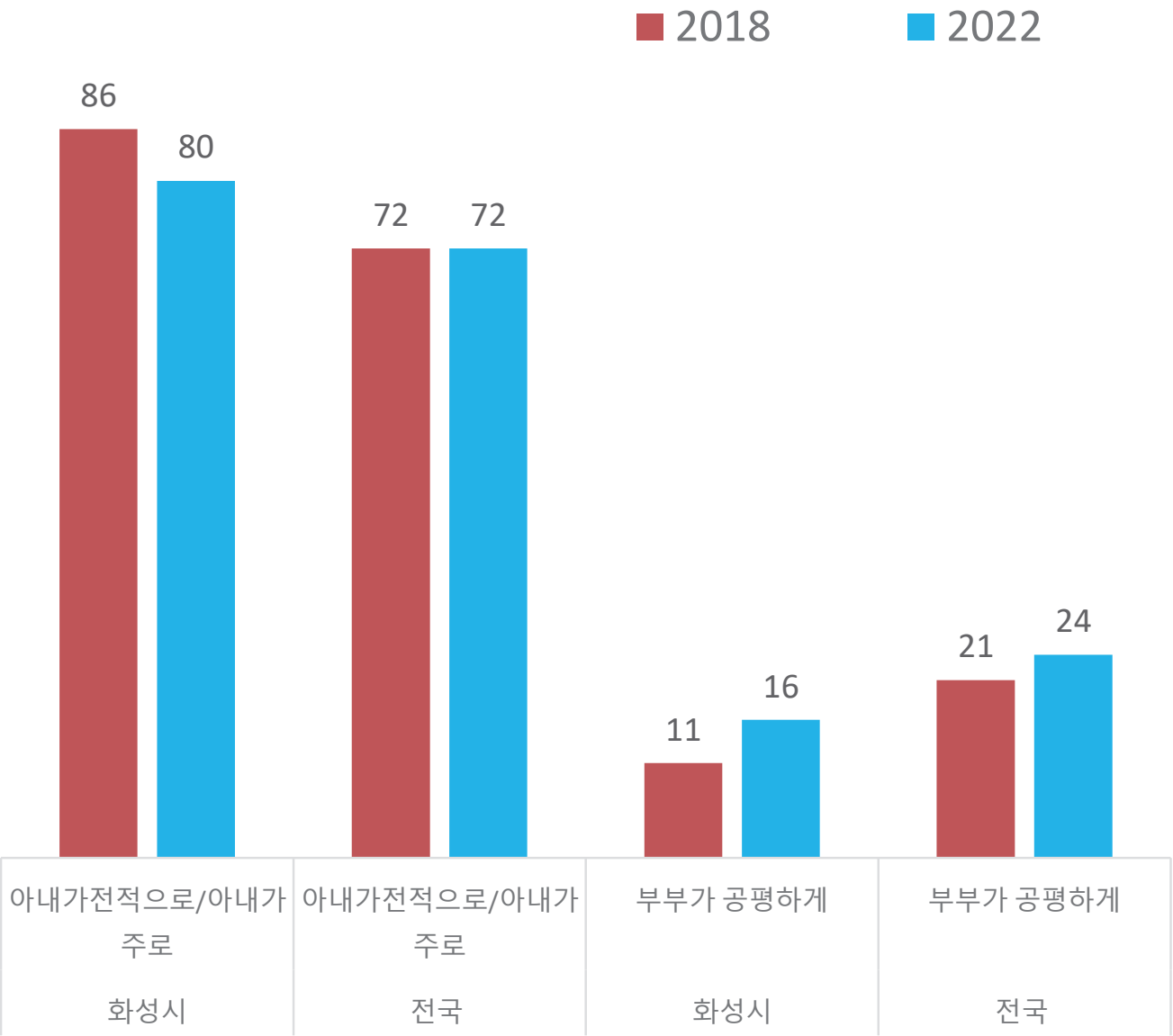
2) 취업자 대상임.

가사분담실태

기혼가구, 가사분담실태 (전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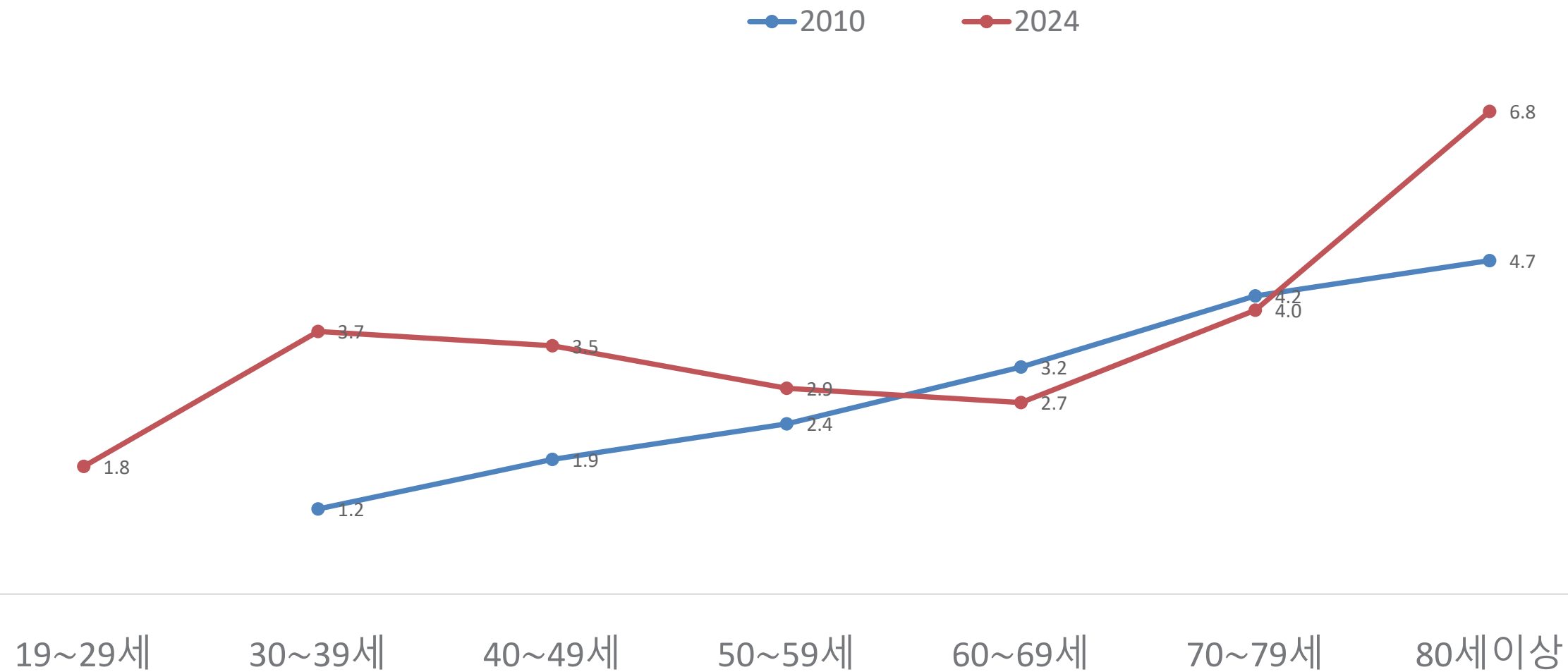


기혼 가구, 가사노동 분담 실태 (화성시, 전국 비교, %)



남편이 가사노동을 전담 혹은 전적하는 경우, 누구인가?

기혼가구, 남편이 주로 혹은 전적으로 가사노동 (%)



요즘, 누가 가사노동을 하는가?

- | | | |
|-----------------------|--------|--------------------------------------|
| •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 여성 | • 성역할 이데올로기 가설 (1980-90년대) |
| • 시간이 많은 사람 | 여성 | • 시간가용가설 (1990-90년대) |
| • 가사일을 잘하는 사람 | 여성 | • 취향과 취미 그리고 기술 가설 (2000년대) |
| • 돈이 적은 사람 | 여성 | • 절대소득가설 / 상대소득가설 (2000-2010년대) |
| • 협동을 잘 하는 사람 | 여성과 남성 | • 협력가설 (2020년대) |
| • 주변에서 다 하니까 하는 사람 | 남성 | • 주변효과 (neighborhood effect) (2025년) |
| • 필요와 상호성에서 하는 사람 | 여성과 남성 | • 고령자 부부 |

함께 살아가는 화성을 만들어가는 노력

함께 살아가는 화성을 만들어가는 노력: 정책차원 전략

1. 가족 관련 통계제공 및 분석 - 가구 단위 맞춤형 정책 설계

인구·가구 변화, 돌봄 수요, 가족 형태별 특성 데이터

근거기반 가구 단위 맞춤형 정책 설계 가능

2. 가족교육·전문인 양성과 촘촘한 지원 - 부부 소통, 세대 이해, 갈등 조정 교육

부부 소통, 세대 이해, 갈등 조정 교육

돌봄·상담·중재 전문인력 양성

3. 가족문화 캠페인과 시민 인식 확대 - 가족은 '함께 만드는 것'에 대한 문화 확산

가족문제를 외부에 '아웃소싱'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함께 만드는 공동 노력의 문화 확산, 여성(남성)의 돌봄이 아니라 모두의 돌봄

함께 살아가는 화성을 만들어가는 노력:

시민 실천 전략 - Stand up, Speak, Listen

1) Stand up – 권력·의사결정 구조 점검

- 우리 가족에서 내가 '나' 다울 수 있는가?
- 우리 가족 내에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는 없는가?

2) Speak – 불합리한 부분, 암묵적 침묵을 깨는 목소리를 낼 것

- 대화와 협상력, 조정력을 통한 갈등 해결

3) Listen – 돌봄의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

- 침묵했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4) Together - 가족을 넘어 관계망 확장

- 공동육아, 비상연락처, 생활지원사·지역 활동가 연계

- Delegate, Enlist help, Say no – 혼자 다 하려 하지 않고, 도움 요청과 역할 분담
- Set up routines / Focus on value – 시간·에너지 관리와 중요한 활동에 집중
- Move on with resilience –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회복력 있는 관계 만들기

맺음말

"Warm, Inclusive, Caring Society"

따뜻함(Warm): 관계와 감정의 회복

포용(Inclusive): 모든 가족 형태와 구성원의 목소리 존중

돌봄(Caring): 전 세대·전 생애의 상호 책임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화성시의 미래는 매일의 실천과 작은 노력들에서 시작합니다.

보편적 인권과 따뜻한 공동체는 가장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

“Where, after all, do universal human rights begin?”

In small places, close to home — so close and so small that they cannot be seen on any maps of the world. Yet, it is these small places, over which our daily lives are played out, the places we know — if we cannot protect them, then we have little hope of protecting the larger places.”

엘리노어 루즈벨트

Q&A

2025 화성특례시

가족정책 포럼

종합토론



화성특례시 청년정책협의체 회장
윤 재 원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 청년정책협의체 회장 윤재원입니다.

오늘 저는 화성특례시의 가족정책이 우리 청년들의 일상에 존재하는 공백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메우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에게 가족은 더 이상 당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결혼과 출산을 넘어, 독립적 개인으로서의 삶과 성장을 먼저 고민하죠.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 높은 주거비, 고용 불안정 같은 현실적인 공백에 부딪힙니다.

이 공백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경기도 청년의 약5.9%가 고립·은둔 청년인 것으로 나타난 사실 이 이를 증명합니다. 심지어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가족돌봄청년’ 문제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가장 아픈 공백입니다.

화성시는 이러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정책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전통적인 출산 지원을 넘어, ‘청년 개인의 삶을 지원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초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성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의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화성특례시의 ‘연지곤지통장’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전국 최초의 혁신적인 사례이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주거 불안이라는 현실적인 공백을 해소하려는 노력입니다.

또한,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메워지지 않은 공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화성특례시의 가족정책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감 효과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화성시는 청년 주택 공급과 임대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는 중요한 노력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여전히 높은 진입 장벽과 제한적인 공급 물량으로 인해 체감 효과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책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주거 불안이라는 공백이 완전히 메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정신 건강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공백입니다. 현재 ‘우리가족 통합 심리지원 서비스’와 같은 정책이 있지만, 1인 가구 청년이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는 통합적인 정책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화성시 가족정책 관계자 여러분, 청년의 일상 공백은 이제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으로 메워지지 않습니다. 고용, 주거, 심리적 안정 등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성특례시는 ‘청년의 삶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곧 ‘가족정책의 완성’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저희 화성시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이러한 변화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청년들의 삶의 공백을 진정으로 메우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시가족센터장
박 미 경

오늘 포럼은 “가족정책이 과연 시민의 일상을 메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정책과 제도가 존재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며 시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고 있는가라는 본질적 물음입니다.

화성시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역량강화를 위한 예방적 사업을 수행하는 가족복지 전문기관이며,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가족정책을 통해 현장에서 저출산·고령화, 다문화 확산 등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엔젤에서 실버까지 생애주기별 서비스는 물론 다문화가족, 1인가구, 이혼전후 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 특성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폭넓게 가족정책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체계적인 기획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수행하여 화성 시 다양한 가족들의 건강성과 안정성 증진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최근에는 2년 연속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2023 전국 가족센터 평가 최우수등급, 2024년 전국 센터 우수사업 공모전 대상)

화성시가족센터는 이처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였지만, 현장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정책과 현장의 간극 또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점들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안에서 그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가족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5)의 추진방향은 가족 다양성 포용,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여건 보장,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존중입니다. 이에 핵심적인 과제로 일·생활 균형, 가족 돌봄 강화, 위기가족 보호, 다양한 가족 지원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느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째, 돌봄 기능의 확대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가 확대되고 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족센터의 고유사업인 부모·부부교육, 가족상담 등 예방적·보편적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둘째, 가족 유형별 분절적 접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가족 유형별 정책 강화는 지원대상이라는 낙인 초래와 가족정책의 본래 목표인 보편적 서비스와 사회통합에는 한계를 나타내었습니다.

셋째, 지역 간 불균형

화성특례시는 동탄·병점 등 신도시 지역과 서부 농촌 지역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지역 간 생활환경이 크게 다릅니다. 정책에 대한 수요 또한 동·서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에도, 수요에 기반한 균형적 서비스 제공의 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방향 제언

이에 2026년부터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정책이 전달체계에서 수행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첫째, 보편적·예방적 서비스 중심으로의 전환

특정 대상에 대한 유형별 지원도 필요하지만, 모든 가족이 이용 가능한 교육과 상담 등에 대한 방향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교육, 부부교육, 자녀발달 지원 등 예방적 서비스가 확대될 때 정책이 생활 속에서 좀 더 체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권역별 맞춤형 정책 설계

대도시·신도시와 농촌·도서 지역은 수요가 다릅니다. 면적이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화성특례시와 같은 도농복합도시에는 특히 권역별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균형적 서비스 배치가 가능하도록 지역특성에 기반한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서비스의 유기적 결합과 통합형 지원

지금처럼 돌봄, 다문화, 위기 지원, 가족교육을 대상별로 나열하고 유형별로 접근하기보다는, 통합적·포괄적 가족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사업 간의 유기적·화학적 결합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 배제와 낙인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전달체계 확충과 전문성 강화

가족센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가족센터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인력 충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담보해야 합니다.



화성시가족센터장
박 미 경

3. 화성시 가족정책에의 시사점

화성특례시는 105만 인구의 수도권 핵심도시로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가장 빠른 인구 증가율을 보이는 성장도시입니다. 2024년에는 출생아 7,200명의 높은 출산율과 20.7%에 달하는 아동인구, 7%를 넘어선 외국인 인구 등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동·서 지역 간 생활환경과 정책 수요의 편차도 큼니다. 마치 2개의 서로 다른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센터가 일상적 필요를 충족하는 가족정책의 중요한 거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단 1개소에 불과합니다.

현장에서는 가족상담 등 여러 사업들이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족센터의 추가 설치의 선택이 아니라 제도적 필수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이를 통해 권역별 맞춤형 서비스, 예방 중심의 보편 서비스, 사회통합형 다양한 가족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가족센터 추가 설치의 화성특례시의 급격한 양적 성장에 부합하는 질적 성장을 동력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1등 특례시 화성시'의 성장 목표 또한 가족정책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정책은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과 설계도 중요하지만, 수요자인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입니다. 이에 가족정책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공동체 기반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체감도가 높은 정책수립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성과를 더욱 확산시키고 구조적인 한계를 개선하는 이중 과제를 수행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가족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기관인 만큼 사회적 책무성을 가지고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기 발생 이전에 건강성을 함양하는 예방 중심의 선제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이를 통해 단순한 복지기관이 아니라 정책과 현장을 잇고 가족의 일상을 연결하는 가족정책의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이 이러한 과제를 공유하고, 가족정책이 단순한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시민의 일상을 든든히 메워주는 정책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김 미 영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의회 김미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족정책, 일상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 전하고 싶습니다.

한 맞벌이 부부는 아이가 오후 2시에 학교에서 돌아온 뒤, 저녁 6시까지의 시간을 늘 걱정합니다. 돌봄 교실은 이미 정원이 꽉 차 있습니다. 결국 조부모님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손주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 가족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지원이 아닙니다.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시간” 바로 그 작은 돌봄의 손길입니다.

또 한 청년은 1인 가구였습니다. 코로나시기에 수술이 필요했지만,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수술이 지연됐 습니다. 가족이 없다는 사실이 그 청년에게는 가장 큰 불안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족정책이, 그 청년에 게 과연 어떤 힘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90세 노모를 돌보는 60대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도, 어머니의 삶도 점점 무너져간다.” 요양시설 이용료의 부담과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시설 대기자는 너무 길고, 방문 요양 서비스는 시간 제약 이 많습니다. 이분이 바라는 것도 단순합니다. 잠시라도 부모를 맡기고 숨을 고를 수 있는 일상의 쉼터였습 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다른 상황 같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정책이 아직 시민의 일상 속 공백 을 충분히 메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정책은 주로 출산 장려와 보육지원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민들 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은 훨씬 다양합니다. 아이 돌봄의 공백, 간병의 공백, 1인 가구가 느끼는 외로움의 공 백,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맞춤형 가족정책입니다. 이제 가족은 전통적 형태만이 아닙니다. 1인 가구,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을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돌봄의 생활화입니다. 가족이 홀로 감당하는 돌봄에서 벗어나, 학교, 복지관, 마을이 함께하는 돌봄 체 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도, 어르신도, 장애인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서적 공백 해소입니다.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담 서비스, 공동체 모임, 문화, 여가프로그램이 함께할 때, 비로소 정서적으로 지탱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 가족정책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 은 바로 시민의 하루하루를 지탱하는 안전망입니다.

우리 화성시가 해야 할 일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한 시간, 아픈 부모를 대신 돌 봐줄 수 있는 작은 손길, 혼자 사는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바로 이런 작지만 확실한 지원이 가 족정책이 채워야 할 공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문가 분들과 함께 그 길을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의회에서 시민의 일상을 보듬는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김 상 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라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족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의 돌봄, 교육, 주거, 고용 환경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화성시민들은 여전히 맞벌이 돌봄 사각지대, 청년의 불안정한 주거 기반, 노년층 돌봄 공백 등 다양한 ‘틈새’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의 가족정책은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여성비전센터, 가족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인프라 위주로 설계되어 현금 지원과 같은 직접적 체감 정책이 부족, 돌봄 서비스가 영유아 중심에 머물러 아동·청소년, 노년층 지원은 제한적 가족정책이 ‘복지사업’에 치중되어 정책 관점의 통합성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저는 화성시 가족정책이 시민의 일상적 필요에 실질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편성과 다양성의 확장

가족 형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구가 돌봄·교육·주거·경제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을 포용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돌봄 체계의 생애주기화

현재 영유아 중심의 돌봄을 넘어, 청소년 방과 후 돌봄, 노인 주간·야간 돌봄, 치매 어르신 돌봄 서비스로 확대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가 안심할 수 있는 24시간·휴일 돌봄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일·가정 양립의 실질적 지원

단순히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자영업자 가정도 활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돌봄 참여를 제도적으로 장려해야 합니다.

시민 참여와 홍보 강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라운드테이블, 설문조사, 공청회를 정례화하여 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정책 홍보를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정책은 단순히 ‘저출산 대책’이나 ‘복지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일상의 문제이자,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화성시의 가족정책은 시민의 생활 중심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가족정책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가족정책은 반드시 일상의 공백을 메우는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화성시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러한 변화가 현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
김 설 화

안녕하십니까?

2025년 화성특례시 가족정책 포럼에 청소년 토론자로 참여하게 된 안화고등학교 3학년 강설화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가족정책, 일상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상의 공백’의 의미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 공백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생활비 부족이나 주거 문제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공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소년들이 느끼는 공백은 다릅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고, 대화와 공감의 사라지면서 정서적 빈자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질이 아닌 마음의 부족이 오늘날 더 중요한 과제가 된 것입니다.

화성시는 그동안 출산지원금, 다자녀 가정 지원, 양성평등 기금 같은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과거에 효과적이었고 실제로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화성시의 많은 가정은 일정 수준의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방식만으로는 저희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정책의 초점을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관계적 공백을 채우는 방향으로 옮겨야 합니다.

청소년으로서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대화의 부족입니다. 부모님은 업무와 생활로 바쁘고, 저희는 학업과 활동으로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다 보니 가족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보다는 각자의 화면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단순히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지지하고 안정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런 역할이 약해진다면 청소년은 물론 사회 전체의 건강성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족정책은 지금 이 공백을 충분히 메우고 있는가?’ 제 답은 ‘아직은 부족하다’입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졌지만, 그 안에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일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정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족 대화 프로그램, 세대 공감 활동, 공동체 기반 문화 프로젝트와 같은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는 물질로 채울 수 없는 공백을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가족정책은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정서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같은 청소년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런 정책이 마련될 때, 화성시는 진정으로 ‘일상의 공백’을 채우며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